

‘경주 선언’ 이끌어낸 李 정부 외교력 대내외 인정

APEC 정상회의 결산

미·중 무역갈등 속 조율 성공
다자간 자유무역 빠졌지만
각료급 공동성명 일부 수호
의장국 중재로 협상타결 견인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국제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경북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미국·일본·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 정상들과 각종 담판을 성사하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력이 대내외에 인정을 받은 것이다. <관련기사 2·6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내 마련된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특히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의 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위기에 봉착한 다자주의 가치를 재확인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PEC 21개 회원은 지난 1일 정상회의를 마치며 공동합의문인 ‘경주 선언’을 타결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국가들은 문안 타결을 위해 당일 오전 7시30분까지 내내 협상을 진행했다고 한다. 자유무역 등 일부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특히 올해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리는 APEC 정상회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 외교로 인해 수십년간 국제사회가 구축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존을

모색했다.

이들의 가장 중요한 점은 APEC 21개 회원이 전환기의 국제 무역질서를 두고 어느 정도 협력을 할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특히 ‘무역 전쟁’을 치르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인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았다.

다만 ‘경주 선언’에는 다자간 자유무역 관련 표현은 담기지 못했다. 미국의 반대 때문이다. 직전 APEC 정상선언까지는 ‘세계 무역기구(WTO)가 그 핵심을 이루는 규칙 기반의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지지’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올해는 정상간 공동선언이 아닌 각료급 공동성명에 들어가는 정도로 타협했다.

WTO로 상징되는 다자간 자유무역에 대한 미국의 반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경주 선언’ 채택 불발의 우려를 딛고, 모든 회원들이 동의하는 결과물을 도출한 점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합의 도출을 위해 중재안을 내놓고 끊임없이 협상한 것이 유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경주 선언’에 ‘WTO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각료급 공동성명을 높이 평가하는 대목을 반영해, APEC의 기반인 자유무역의 가치를 어느 정도는 지켜냈다는 점도 의의로 꼽힌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유류세 인하폭 축소로 휘발유 값 오름세

유류세 인하 두달 연장됐지만
이달부터 10%서 7%로 낮춰

유류세 인하 폭이 줄어들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 게다가 국제유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기름값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유가 상승의 배경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의 일부 봉합 기대심대 등이 꼽힌다.

2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값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리터(1)당 1679.74원으로, 전일대비 1.62원(0.1%) 올랐다. 이는 불과 열흘 전인 10월23일(1660.96원)과 비교해 1당 18.78원(1.13%) 상승한 수치다.

또 전 저점인 올해 6월12일의 1626.99원에 비해서는 넉 달여 만에 49.75원(3.05%)이나 올랐

다. 연내에 1700원을 넘어설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1월31일 1733.57원을 찍은 뒤 3월11일부터 7개월 넘게 1600원대에서 거래돼 왔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분의 점진적 환원을 실시해왔는데, 향후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갈 시에도 환원을 계속 추진할지 관심을 모은다.

앞서 지난달 22일 기재부는

“11월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기준 10%에서 7%로 낮춰 일부 환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10월31일부로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 조치는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더 연장했다.

지난달 말까지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인하율 10%가 적용됐다. <6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社告



메트로경제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

산업의 판도 뒤바꿀 핵심동력 ‘피지컬 AI’ 새 패러다임 시대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신문을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가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 지형’이란 주제로 오는 11월 19일(수요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2025 뉴테크놀로지포럼’을 개최합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은 다시 한번 획기적인 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AI는 소프트웨어(SW)란 한계를 깨고 물리적 현실과 결합하는 ‘피지컬(Physical) AI’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도 피지컬 AI를 ‘AI 모델의 완성형’이라고 말할 정도로 피지컬 AI는 조만간 모든 산업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는 단순한 SW 형태의 AI를 넘어, 센서를 통해 주위 현실 세계를 인지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물리적 장치를 움직이며 경험을 학습하는 ‘몸을 가진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AI가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언어 영역에 한정됐다면, 피지컬 AI는 AI가 스스로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환경을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2025 뉴테크놀로지포럼’에서는 피지컬 AI의 이해에서부터 산업별 혁신 사례, 휴머노이드와 로봇의 진화 등 피지컬 AI의 등장으로 인한 산업 지형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 제: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 지형
- 일 시: 2025년 11월 19일 (수) 오후 2~5시
- 장 소: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 의: 2025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M-커버스토리

전방위 해킹 공습... 국가·금융·기업 동시다발 타격

흔들리는 韓 보안체계

6년 새 금융권 해킹 31건
지자체 하루 3.2만건 공격

국가와 금융, 민간을 가리지 않고 사이버 공격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6년 새 30건 넘는 해킹이 발생했고, 지방자치단체 전산망엔 하루 3만 건이 넘는 침투 시도가 이어진다. 다크웹에선 이미 3억 건이 넘는 국내의 데이터가 거래 중이다. <관련기사 3면>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금융업권 해킹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6년간 금융권 해킹 침해사고는 총 31건, 전산장애훈은 1884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정보 유출 건수는 5만1000여건, 피해 배상금은 약 2억710만원으로 집계됐다.

해킹 피해는 은행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사 6건, 손해보험사 5건, 카드사 4건, 저축은행 3건, 생명보험사 1건 순이었다. 유출된 정보는 저

축은행에서 3만6000여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권사(1만883건), 카드사(3890건), 생보사(2673건), 은행(474건)이 뒤를 이었다.

공격기법별로는 서비스 거부(DDoS) 공격이 13건(41.9%)으로 가장 많았고, 악성코드·보안 취약점 해킹이 각각 7건, 무단 접속 1건 등이었다.

강 의원은 “전산장애와 해킹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건 현행 보안체계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금융당국은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

하고 가이드라인 미준수 기관에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 시스템도 상황은 비슷하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약 4788만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 하루 평균 3만 2000여건꼴이다.

올해 7월까지 이미 1887만 건이 탐지돼 전년 수준(1158만 건)을 넘어섰다.

<3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

메트로 한줄뉴스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서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김민석 총리, 두번째 ‘3+α’ 회의... 온실가스 감축 논의 /사진 뉴시스

▲오세훈 “소비쿠폰 때문에 부동산 올라” 조국 “소가 웃을 주장”
▲“한국은 돌궐 영토” 해외 교과서 오류에도... 재외공관 안일한 대처

▲군 정찰위성 5호기, 지상교신 성공... “24시간 한반도 감시정찰”
▲한동훈·장혜영, 3일 ‘새벽배송 금지’ 찬반 두고 공개 토론

엔비디아發 전환 가속… 삼성·현대차·SK ‘AI 초격차’ 시동

엔비디아, 韓에 26만장 GPU 공급
삼성, AI팩토리 구축 반도체 효율 ↑
SK, 울산 AI센터로 인프라 확충
현대차, 블랙웰로 AI주행 가속

전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삼성과 SK,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 국내 기업에 26만장의 최신형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탑재된 AI 칩 공급을 약속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AI 생태계 전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에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경우 미국과 중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양의 최신 GPU를 확보해 AI 강국으로 도약하게 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최신 AI 칩을 한국 정부에 5만장, 삼성·SK·현대차에 각각 5만장, 그리고 네이버에 6만장을 공급한다. 공급 대상 GPU로는 GB200, RTX6000 등이 꼽히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GPU의 수요 폭증에 따라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AI 칩을 대량 확보한 것으로 국내 기업들의 향후 기술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셈이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이재명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희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0월 31일 APEC 정상회의 장소인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접견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반도체 AI 팩토리’를 설립해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반도체 생산 효율을 강화한다. 삼성전자의 AI 팩토리는 한국 미국 중국 등에 갖춰진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지능형 제조 플랫폼으로 설계된다. 설계, 공정, 운영, 품질관리 등 제조 전 과정을 AI가 스스로 분석하고 최적화해 불량률 사전에 예측하고 공정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

또 삼성은 AI 팩토리 구축과 함께 엔비디아에 차세대 메모리와 파운드리 서비스를 공급하며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한다.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3E, 6세대 HBM4, 그래픽용 D램 GD DR7 등이 주요 공급 품목이다.

SK그룹은 엔비디아와 함께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생산을 위한 AI 팩토리를 국내에 구축한다. AI 팩토리는 제조 AI 클라우드, 울산에서의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 엔비디아 GPU 기반의 AI 산업 클러스터다. SK그

룹은 2027년을 목표로 울산에 100메가와트(MW) 규모 ‘하이퍼스케일급’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진행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AI 메모리 주요 파트너로, 최근에는 6세대 HBM4에 대한 공급 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판매 확대에 나선다.

현대차그룹과 엔비디아는 블랙웰 기반 AI 팩토리 도입을 통해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로봇틱스 분야 기술 혁신에 속도를 높인다. 양사는 30억 달러(약 4조3000억원)를 투입해 ‘AI 기술센

터’ ‘피지컬 AI 애플리케이션 센터’ ‘피지컬 AI 데이터센터’를 조성한다.

또 현대차는 2027년 말부터 양산하는 차량에 적용할 레벨 2+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도 가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원가절감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자율주행차에 탑재되는 ECU(Electronic Control Unit)를 공장에서 쓰이는 휴머노이드·센서에 활용하면 원가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블랙웰 GPU를 활용해)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첨단 모델을 활용해 개인화된 디지털 어시스턴트, 지능형 인포테인먼트, 적응형 컴포트 시스템 등 혁신적인 차량 내 AI 기능을 개발할 예정”이라며 “엔비디아의 AI 컴퓨팅 성능을 바탕으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차세대 안전 기능, 몰입감 있는 차량 내 AI 경험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플랫폼을 공동 개발해 반도체, 조선, 에너지 등 국가 주력 산업에 AI 인프라를 공급할 방침이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디지털 트윈과 로봇틱스 기술을 엔비디아의 ‘옵티머스’ ‘아이작 심’ 등 플랫폼과 결합하는 방식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미, 관세협상 타결 설명 ‘엇박자’… 향후 관건은 공식문서 마무리

농축수산물 개방 놓고 양국 입장 달라
반도체 포함 여부도 해석 차로 혼선
합의문 표현 놓고 막판 신경전 예고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이 지난달 하순 타결됐으나, 합의 내용과 관련해 양국 정부의 설명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특히 농축수산물 시장의 개방 범위에 대한 발표는 양측 발표가 완전히 다르다. 또 반도체 조항, 대미투자펀드의 이익 배분 등에서도 모호함에 묻어난다.

타결 이후 남은 절차는 문서 형태로 남기는 ‘공동 팩트시트’ (설명자료) 작성이다. 정부가 팩트시트 문구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는 현재 각각의 자국언론 설명회 등에서 합의 내용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견을 보이는 부문 중 하나는 농축수산물의 시장 개방 범위다. 우리 정부는 “추가 개방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한국 시장은 100% 개방됐다”라고 주장한다.

이는 쌀·소고기 등의 농축산물 시장은 추가 개방 없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반도체 조항에 대한 해석 역시 차이가 나타난다.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 상무부는 “이번 합의는 반도체를 포함하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 있다.

한미관세협상 타결에 포함된 ‘투자위원회’와 ‘협위원회’ 설치 조항도 모호하다. 현재 미국 상무부 장관이 투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한국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의위원회를 이끌기로 돼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두 위원회가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며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은 어느 쪽이 갖는지 불확실하다.

또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조성될 펀

드의 이익 배분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 현 단계에서는 원리금 회수 전까지 수익을 5대 5로 나누고 20년 내 원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만 알려져 있다.

하지만 원금 회수 이후의 이익 배분이나 손실 발생 시 책임 범위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손실이 발생할 시 한국 측에서 손실을 전액 부담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뒀야 할 판이다.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사업적 합리성 없이 했다가 손실이 나면 투자 비율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며 “사업 자체가 양호한 사업으로 선

정돼야 한다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금도 더 긴장해야 할 시간”이라며 “지금도 협상 담당자들은 계속 오고가는 문구를 체크하고 있다”고 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는 “원금 회수 이후에도 5대 5라는 원칙이 유지되도록 ‘원금회수 시까지’라는 단서 조항은 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또 “알래스카 LNG 사업 등 사업성이 불투명한 사업에 투자하게 될 경우, 손실에 대한 부분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도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국제행사 타고 뜨는 깐부치킨·바나나맛 우유… K-푸드 브랜드 ‘들썩’

깐부치킨 등 브랜드 가치 급등
경주서 황남빵 외교로 위상 높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현장에서 의외의 ‘국민 간식’들이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치맥 회동에 깐부치킨과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가, APEC 정상회의 만찬에는 경주의 전통 디저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깐부치킨은 지난 30일 젠슨 황 CEO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희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치킨과 맥주를 곁들인 회동을 가지면서 ‘글로벌 CEO의 선택’으로 화제를 모았다.

황 CEO는 “치킨과 맥주를 좋아한다. 친구들과 함께 즐기기에 깐부가 딱 맞는

곳이라 생각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테이블에는 순살·뼈치킨, 치즈볼·치즈스틱과 함께 ‘테라’, ‘참이슬’이 올랐다.

‘깐부’는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대사 “우리 깐부잖아”로 해외에 알려진 한국식 우정의 상징이다. 황 CEO가 굳이 이곳을 택한 것도 ‘친구’와 ‘동료’를 뜻하는 깐부의 의미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깐부치킨은 2006년 김승일 대표가 창업해 ‘치킨 카페’ 콘셉트를 앞세워 성장한 브랜드로 한때 매출 300억 원을 넘겼지만, 팬데믹과 배달시장 확대로 부침을 겪었다. 그러나 2023년부터 상품매출이 늘며 영업이익 35억원, 2024년 49억원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업계는 이번 ‘치맥 회동’이 깐부치킨의 제2 전성기를 여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이날 깐부치킨과 함께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도 화제를 모았다.

황 CEO가 김밥과 함께 바나나맛 우유를 시민들에게 직접 나눠주는 모습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며 “젠슨 황 바우 득템”이라는 게시물도 X(전 트위터)에서 퍼져나간 것. 이에 빙그레는 곧바로 공식 SNS에 “바우 100개 쏘겠습니다. 황송합니다”라는 문구의 포스터를 올리며 발 빠르게 대응했다. ‘겟슨(젠슨)’, ‘황’을 노란색으로 강조한 재치 있는 카피가 입소문을 타며 자연스러운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냈다.

빙그레는 오는 6일까지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단 100명에게 바나나맛 우유 모바일 기프트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한편,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K-디저트’가 세계 정상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공식 디저트로 선정된 경주의 명물 ‘황남빵’은 주요 회의 테이블마다 등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경주에 오면 십중팔구 황남빵을 먹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갖 구운 황남빵을 직접 포장해 선물하기도 했다. 중국 대표단에 전달된 황남빵만 200상자에 달했으며, 시 주석은 “황남빵을 맛있게 먹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외에도 파리바게뜨의 ‘안녕샌드’, 부창제과의 ‘호두과자’, 단석가의 ‘찰보리



빙그레가 바나나우유 증정 이벤트를 펼친다. /빙그레

빵’ 등이 행사장 곳곳에 등장해 외신 기자단과 해외 정상들의 호평을 받았다. ‘안녕샌드’는 한글 인사말과 전통 문양을 담아 한국적 감성을 살렸고, ‘호두과자’와 ‘찰보리빵’은 건강하고 정갈한 맛으로 ‘디저트 외교’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ISMS-P’ 면피수단 전략… “안일한 인식·정책, 피해 키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보안사고 부실대응 논란

기업, 실적 집중… 보안투자 뒷전
정부, 인증 등 ‘보여주기식’ 한계

‘ISMS-P’ 기업도 연쇄해킹 사고
산업별 특화기준 등 제도보완 시급



ISMS-P 인증.

올해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전례 없는 연쇄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 산업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 해킹으로 막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피해 규모보다 더 큰 논란을 부른 것은 기업들의 부실한 대응이었다.

상당수 기업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MS-P’를 받았음에도 해킹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거나, 정황이 확인되고도 신고를 지연하고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보여주기식’ 제도에 기댄 한국 보안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다.

2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ISMS-P 인증 기업들마저 잇단 해킹에 무력함을 드러내, ‘보여주기식’ 보안 체계와 허술한 거버넌스가 한국 사이버 보안의 구조적 한계임을 드러냈다.

올해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보안사고는 KT였다. 8월 불법 기지국 해킹으로 고객 368명, 2억4319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한 달간 이상 징후를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됐

다. SK텔레콤도 3년간 눈치채지 못한 9.7GB 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고, 롯데카드는 ISMS-P 인증 한 달 만에 297만 명의 개인신용정보가 털렸다. 이외에도 GS리테일, 블랙야크, 인크루트, 명품 브랜드 등 전 산업권으로 해킹이 확산됐다.

연쇄 해킹 사고는 ISMS-P 제도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사고 기업 대부분이 인증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KT 사고의 침투 경로인 ‘웹토셀’은 ISMS-P 인증 범위에서 빠져있어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이해민 의원실은 KISA가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코어망 중심으로만 심사해 웹토셀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조진진 롯데카드 대표 역시 청문회에서 “광범위한 인증 범위는 사실이나 모든 항목을 점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시인했다.

보안 업계는 “해킹을 100% 막는 인증은 없다”며 “국내 ISMS-P가 해외 ISO 인증보다 심사 강도가 높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기업들이 보안 사고 시 ISMS-P를 ‘면피 수단’으로 악용해 온 만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인증 범위를 구체화하고 통신, 의료 등 산업별 특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폐쇄망이라 안전하다’는 통신사의 안일한 인식이 이번 참사를 불렀다고 입을 모은다. “망을 뚫기 힘들다”는 논리로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한 결과, 관리 안 된 임시 서버(SKT)나 허술한 웹토셀 장비(KT)가 공격의 빌미가 됐다. I MSI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을 ‘3GPP 표준’이라 변명했지만, 5G 표준(SUPI/SUCI) 등 능동적 보안 체계를 적용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근본 원인으로는 기업 내부의 거버넌스 문제가 지목된다.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CEO 직속이 아닌 네트워크 부부장 소속인 경우가 많아, 성능과 비용을 우선하는 네트워크 조직에 밀려 보안 투자를 요구하기 힘들다. CISO가 ‘제로 트러스트’를 주장해도 “ISMS-P

인증도 받았는데 왜 추가 투자를 하나”는 윗선의 반대에 부딪히는 구조다.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보안 극장 효과(Security Theater)’를 지적하며, ISMS-P 인증을 부여한 정부가 정작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구조적 모순을 꼬집었다. 그는 한국의 보안 체계가 ‘안전하다는 착각’을 주는 형식적 정책들로 인해 오히려 취약해졌다고 진단하며 네 가지 근본 문제를 제시했다. ▲AI·원격근무 시대에 안 맞는 획일적 망분리(한 번 뚫리면 내부로 급속 전파되어 오히려 취약점으로 작동) ▲금융권 강제 보안프로그램 설치 관행(해킹 통로화(7개 프로그램에서 19건의 심각 취약점 확인)) ▲ISMS-P 인증의 실효성 문제(오랜 패치 누락에도 인증 유지되는 등 제도 운영이 부실) ▲화이트해커 보호 장치 부재(취약점 신고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소송으로 이어져 신고·발견을 가로막음) 등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1면 ‘전방위 해킹공습’서 계속

올해 3억건 데이터 유출

전체 시도의 99%가 서울과 충남에 집중됐으며, 충남지역은 올해만 1200만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서비스 거부(491만건), 정보수집(344만건), 시스템 권한획득(146만건), 정보유출(65만건), 홈페이지 변조(52만건), 악성코드(51만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피해도 15건 발생했으며, 강원도(12건), 인천(2건), 대전(1건) 등이 시스템 침투를 당했다.

민간 영역에서도 데이터 유출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이버보안 기업 프로톤(Proton)이 올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다크웹에서 확인된 국내의 유출 건수는 총 794건으로 이를 통해 3억 건이 넘는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됐다.

/김서현 기자

AI發 ‘전력망 리스크’ 확산

송·변전 설비 등 인프라 중요성 커져
韓, 투자 지지부진… 공급 한계 우려

AI 서버와 첨단 반도체 생산라인의 전력소모가 급증하면서 산업 전반에 전력망 병목이 우려되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의 전력 수요를 해결할 송·변전 설비 등 공급 인프라 확충이 산업 성장의 변수로 부상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생성형 AI 확산과 고성능 연산 수요 증가로 데이터센터·반도체 공장의 전력 사용량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대형 GPU 운용이 보편화되면서 AI 서버 한 대당 전력 부하가 급격히 늘고 있으며,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력소비가 2024년 415 TWh에서 2030년 945 TWh로 두 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산업에서도 전력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TSMC는 2017~2022년 전력사용량이 약 1만1000GWh에서 2만1000GWh로 85% 가량 증가했다. 삼성전자 역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2023년 DS(반도체) 부문 전력사용량을 2만7042GWh로 밝혔다. 이는 DX(모바일·가전) 부문 전력 소모량인 2914GWh의 약 9 배 수준이며, 2021년(2만2624GWh)보다 약 19% 늘어난 수치다. SK하이닉스의 전력 소모량도 2021년 1만921GWh에서 2023년 1만2011GWh로 10% 이상 증가했다.

/정희준 기자 nauta@

이 같은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38년까지 73조원 규모의 송·변전 설비 투자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한국전력공사 자료에 따르면 계획에 포함된 송·변전설비 54건 중 55%가 ‘자연 또는 자연 예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공급 리드타임이 길어지면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입지 확장이 지연되는 구조적 병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유사한 병목에 직면한 이후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는 중이다. 아일랜드는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신규 접속을 중단했고, 네덜란드는 고효율 장비 사용을 의무화해 공급부담을 낮추고 있다. 싱가포르의 데이터센터 신규 허가를 재개하되 2025년부터 최소 에너지효율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미국 버지니아주는 송전선 인허가 지연으로 전력 접속 대기가 늘자 가스발전과 저장 설비 투자를 병행하고 있다.

한국 반도체산업협회 고종완 실장은 “반도체가 첨단화될수록 필요 미세공정과 고단적층 장비로 인해 기존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관련 기업은 필요한 전력량 확보를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업을 진행 중이며, 자체 전력 효율을 높이는 등의 노력 역시 병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문화의
예술의
즐거움을
누구에게나!

오늘도 두근두근 BNK는
누구나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는
모두의 부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 모두를 위한
BNK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계속 됩니다

부산은행
갤러리

부산은행
창립기념 음악회

부산은행
어린이 미술대회

부산시민 도서관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 퇴직연금으로!

퇴직은
우아하게

연금
우와하게

우리나라 우리은행

비대면 가입 시 IRP 수수료 0원 | 587종 이상의 엄선한 투자상품 보유

영상광고 바로보기 ※ 비대면 계좌 개설에 한하여 운용 · 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 펀드 운용시 운용금액에 대한 펀드보수 별도 부과 ※ ETF 183종, 펀드 404종 '25.9월말 기준, 대면/비대면 클래스 함께
[RP 유의사항] * [DC/RP]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보호상품합산)보호됩니다. * [DB]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실제 해당형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으며, 금융상품 가입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입하기 전에 투자대상, 판매방법, 보수 등에 관하여 (가)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계약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으로 개인형 RP 계좌 개설시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는 0원입니다. 단 최초 입금일로부터 1년 경과 전타 금융기관 이전 또는 중도 해지시 전체 기간 대면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 개인부담금과 퇴직금을 펀드 운용시 운용 금액에 대한 펀드보수 별도 부과됩니다. * 개인형 RP 대면 영업점 창구 수수료는 후취연 0.25%~연 0.45%/DC의 수수료는 후취연 0.38%(가입자 부담금 기준)입니다. 상세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납입기간 종료 후 연금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내용은 가입 전에 핵심설명서와 계약서를 참조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퇴직연금 전용 고객센터(1599-1000)(상담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사인 심의필 2025-10253(2025.10.10~2025.12.31)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25-04445호(2025.10.21~2026.01.09)

李 대통령, 美·日·中 정상회담 통해 ‘실용외교’ 의미 재확인

경주 APEC 결산

가장 큰 숙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한일 간 협력 중요성 공감대 이뤄
중과 경제·민생·문화 중심 성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을 모두 만나며 숨가쁜 ‘외교 슈퍼워크’를 보였다.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열린 APEC 정상회의의 본 행사 자체도 중요했지만, 이를 계기로 한국이 주요국과 소통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었다. 그러나 일부 우려를 불식하며 옛새간 이 대통령은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잇따라 가지며 소정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가장 큰 숙제였던 대미투자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의 의미가 재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경북 경주에서 열렸다. 이번 정상회의는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 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위기에 봉착한 다자주의 가치를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전통한복 목도리를 하고 단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뉴시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부터 경주에 머물며 APEC을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달아 회담을 가졌다. 주요국과의 연쇄 회담에서 발생한 가장 큰 성과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볼

수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 총 3500억 달러 가운데 2000억달러는 매년 최대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10년간 현금 투자로, 나머지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마스가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 ‘한미 통

화스와프’나 ‘5% 내 현금투자’ 등은 이뤄내지 못했지만, 3500억달러를 전액 현금 투자하며 외환위기를 피하는 불상사는 막은 셈이다.

또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핵연료 제공을 요청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이 덕택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광범위하게 장기간 잠항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을 통해 전략무기를 하나 더 보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향후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을 위한 협상을 거쳐야 하지만, 공개적으로 승인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는 평가다.

한일 정상회담도 당초 우려와는 달리 화기에애하게 마무리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정치인 중에서 ‘극우’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복원한 양국 셔틀 외교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격변하는 국제 정세와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또 다음 한일 회담은 일본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11년 만에 한국에 국빈방문한 시진핑 주석과는 한중 간 민감한 문제보다는 경제·민생·문화 중심으로 성과를 얻어냈다. 지난 1일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중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을 따로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총 6건의 양해각서와 양국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계약서 등을 체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시 주석과 이번 정상회의의 주간 중 가장 긴 시간(97분) 회담을 한 것을 보면, 발표된 것보다 더 다양한 분야가 의제로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 같은 순환형 행정 이어지길”



인터뷰

박 함 윷 국토교통부 청년보좌역

주거정책 전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실무형 프로그램·질의응답·상담 구성
정권교체에도 청년정책 지속돼야
완벽할 수 없지만 피드백으로 성장



박함윷 국토교통부 청년보좌역이 <메트로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메트로경제

잘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전(前) 정부가 야심차게 시도한 청년보좌역에 지원해 ‘주거 정책 알리기’를 자처한 청년, 박함윷(33) 국토교통부 청년보좌역을 만났다. 공공 영역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일념으로 국토교통부 2기 청년보좌역에 지원해 가장 애정을 쏟은 사업은 바로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였다.

박 보좌역은 결혼한 지 한 달 된 따끈 따끈한 새 신랑이다. 그래서인지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정부의 주거 정책이 현장과 가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는 실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정확한 정보를 알

기 쉽게 정리해 현장과 정책의 거리를 좁히는 데 주안점을 뒀다.

박함윷 보좌역은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는 정책이 청년에게 직접 다가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시도였다. 국토교통부 청년정책총괄팀을 지낸 박준우 주무관님과 함께 ‘정책이 먼저 찾아가자’라는 생각으로 직접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부처 예산을 끌어오고, 상사를 설득하고, 강사를 섭외하는 등 다양한 업무가 그의 손을 거쳤다.

박 보좌역은 “처음엔 자립준비청년은 라인 교육에서 출발했는데, ‘처음 알게 된 제도가 많았다’, ‘정부가 직접 알려주니 신뢰가 생겼다’는 반응을 계기로 전국 확산을 결심했다”며 “2024년 8월 첫 상담소를 열고 군 부대·대학·정부부처·청년센터 등으로 확장하며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월 1~2회 순회 상담을 이어갔고, 언론에도 100건 이상 보도

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고 소개했다.

상담소를 모 군 부대에 꾸렸을 때 부대 대대장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장병들에게도 좋고, 갓 임관한 하사나 소위 같은 간부들도 미리 자신의 주거를 준비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박 보좌역은 누구나 상담소를 찾으면 계약, 공공주택, 대출상품, 청약까지 주거 정책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 그는 “상담소는 부동산 계약(민간 전문가), 공공주택(LH), 대출상품(HUG), 청약(부동산원) 등 청년 주거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실무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고, 이후 질의응답과 개별상담을 병행했다”며 “현장에서 청년들이 구체적 해법을 찾는 모습을 보며, 행정이 문서가 아닌 사람의 얼굴을 보는 일임을 실감했다”고 떠올렸다.

박 보좌역은 주거상담소 사업을 ‘순환

형 행정’의 대표 사례라고 설명했다. 정책 설계자가 사무실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정책을 배우고,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을 완성하는 효능감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부처별로 보면 참 관찰은 정책들이 많다. 그런데 정작 청년 삶 속에서는 정책들이 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이 여전히 견고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사업이 쏟아져 나오고, 그 과정에서 기존 사업들은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꾸준함보다는 ‘새로움’이 강조되다 보니, 좋은 사업이 자리 잡기도 전에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는 점이 아쉽다”고 부연했다.

박 보좌역은 “그러나 그 실태 속에도 행정이 배워야 할 ‘현장의 언어’가 있다. 정책은 완벽할 수 없지만, 피드백이 다음 설계로 이어질 때 행정은 성장한다”며 “지금의 청년정책 역시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행착오를 기록하고 학습하는 과정이 다음 세대 행정의 자산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與野, 728兆 규모 예산안 심사… 지역사랑상품권 등 충돌 전망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 열어
ABCDEF 핵심산업기술에 10.6兆
野, ‘포폴리즘 정책’ 예산삭감 집중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가 곧바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표 예산’ 반영을 두고 여야가 대립을 반복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지킬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달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일정에 돌입한다. 오는 6~7일 종합정책질의로 중앙부처 수장에게 예산안

의 적절성을 질의한다. 오는 10~11일엔 경제부처, 12~13일엔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 또한 오는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증액과 감액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이후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원 규모로 편성돼 올해보다 8% 이상 늘었다. 총수입은 674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2조6000억원(3.5%) 증가했다. 국세가 7조8000억원, 세외수입이 14조8000억원 각각 늘었다. 반면 총지출은 54조7000억원(8.1%) 늘어난 728조원으로 잡혔다. R&D 예산이 35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7000억원(19.3%) 늘

어 역대 최대 인상공을 기록했다. 정부는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ABCDEF’ 핵심 산업 기술 개발에만 10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부터 역점을 뒀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 지키기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포폴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예산 삭감에 집중할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강원 지역 주요 시·도지사들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포폴리즘 ‘재정정책’에 맞서 민생과 성장 중심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국제유가도 상승… 美-中 갈등완화 등 원인

>> 1만 ‘유류세 인하폭’…서 계속

이에 휘발유 유류세는 인하 조치가 처음 시행(2021년 11월)되기 이전인 1당 820원보다 10%(82원) 낮은 738원이었다.

그러나 이달 1일부터 인하율이 7%로 내려감에 따라 유류세는 820원 대비 7%(57원) 낮은 수준으로 축소됐다. 결과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10월 말 수준에 비해 1당 25원(738원→763원) 오른 셈이다.

경유에 적용하는 유류세도 10월 말 494원에서 523원으로 29원 올랐다. 액화석유가스(LPG)와 부탄도 173원에서 183원으로 각각 10원씩 올랐다.

국제유가도 상승 국면으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

PEC) 정상회의 기점의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완화를 비롯해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미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은 10월31일(현지시간) 기준 배럴당 60.98달러를 찍었다. 10월21일(57.82원) 수치와 비교해 3.16달러(5.46%) 올랐다. 북해산브렌트유와 중동두바이유도 이 기간 마찬가지로 흐름을 보였다.

국제유가는 통상적으로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대한석유협회는 휘발유 값 상승과 관련해 ▲국제유가의 연속 상승과 ▲유류세 인하율 일부 축소 등을 이유로 들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서울 곳곳이
18만 4000쌍 신혼설렘으로
가득해집니다
”

미리 내집

서울시가 구해주는 신혼집, 미리내집 |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하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담없는 전세가로 주택을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결혼 예정 및 7년 이내
신혼부부
(자녀 유무 무관)



39㎡ 부터 84㎡ 까지
다양한 면적



입주 후 아이 출생 시
최장 20년 거주



2자녀 출생 시
시세 90% 매입
(3자녀 시 80%)



‘로또청약’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반값 아파트지만 현금 25억 필요

분상제 최고가 평당 8484만원
인근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
당첨 시 최고 30억 차익 기대
대출 막혀 현금 동원력이 관건

분양가 상한제로 소위 ‘로또청약’으로 거론되는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이 3.3㎡(평)당 8484만원에 분양에 나선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가운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인근 시세 상승폭에는 크게 못미치면서 로또를 넘어 ‘반값 아파트’ 수준이 됐다. 당첨만 되면 최고 3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되지만 현금 동원력이 관건이다. 10·15대책으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30평대의 경우 대출은 2억원이 최대다. 당첨이 되더라도 25억원 가량의 현금이 있어야 한다.

2일 청약홈에 따르면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오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13일 2순위 순으로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19일이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서초구 반포동 일대의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를 재건축한 단지다. 지하3층 ~ 최고 35층, 17개동, 총 2091세대 규모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506 세대다. 타입별로는 ▲59㎡A 223세대 ▲59㎡B 129세대 ▲59㎡C 26세대 ▲59㎡D 78세대 ▲84㎡A 14세대 ▲84㎡B 29세대 ▲84㎡C 7세대 등이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가장 큰 장점은 교통과 학군, 생활인프라, 자연환경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입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투시도.

/홈페이지

지다. 9호선 구반포역과 직결했으며, 4호선 동작역과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모두 인접했다. 반포초와 반포중, 서래초, 잠원초, 신반포중, 세화여중고 등이 반경 1km 이내 위치했으며, 서울성모병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등도 이용이 편리하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분양가는 평균 3.3㎡(평)당 8484만원이다. 기존 분양가 상한제 최고 가격인 강남구 청담르엘(7209만원)보다 1275만원이 높지만 인근 시세를 감안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분양가는 평형별 최고가를 기준으로 전용면적 59㎡ 21억3100만원, 84㎡ 27억4900만원이다.

인근에 지난 2023년 입주한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전용 59㎡가 올해 8월 42억5000만원에 실거래를 신고했다. 입주 16년차인 ‘래미안 퍼스티지’의 동일 평형도 올해 6월 40억원에 거래됐다.

전용 84㎡의 경우 래미안 원베일리가 최고 72억원, 래미안 퍼스티지가 52억원에 실거래를 신고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대상 지역인데다 10·15 대책으로 대출 제한까지 겹쳤고, 후분양으로 잔금까지 기간도 쪼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투기과열지구에 청약과열지역이다. 3년간 전매가 제한되며, 거주 의무기간도 3년이 있다. 청약 재당첨제한은 10년이다.

분양대금 납부 일정도 빠듯하다. 계약 체결 마감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분양가의 20%를 내야 하며, 두 달여마다 20%씩 납부해 내년 8월까지 잔금을 모두 치뤄야 한다. 규제에 따라 잔금시 59㎡는 최대 4억원, 84㎡는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84㎡라면 현금 25억원을 들고 있어야 청약에 도전해볼 수 있는 셈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KB금융-현대百, 고객경험 혁신 맞손

쇼핑-고금리 혜택 결합 전용 통장
최상위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제공

금융과 유통이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경험을 제공한다.

KB금융그룹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프리미엄 종합자산관리센터 ‘KB 골드앤와이즈 더 퍼스트(GOLD&WISE the FIRST) 압구정’에서 현대백화점그룹과 ‘고객 경험 혁신 및 금융·유통 시너지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KB금융과 현대백화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객 기반 확대·고객 접점 강화 ▲제휴 상품·서비스 출시 ▲ESG 기반 사회공헌 협력 등 고객 가치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 협업을 추진한다. 금융과 유통을 아우르는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결합해 고객에게 자산과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함께 관리받는 고도화된 경험을 제공할 방침이다.

양사는 현대백화점의 쇼핑 혜택과 KB금융의 고금리 혜택을 결합한 전용 통장 등 제휴 상품, KB스타뱅킹 등 KB금융 플랫폼을 활용한 간편 결제 서비스, 양사의 포인트 연계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객 편의와 만족도를 높일수 있



지난달 31일 KB금융의 프리미엄 종합자산관리센터 ‘KB GOLD&WISE the FIRST 압구정’에서 진행된 ‘KB금융그룹-현대백화점그룹 업무협약식’에서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왼쪽)과 장호진 현대지애프홀딩스 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B금융그룹

는 상품과 서비스를 도입한다.

양사는 최상위 고객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과 우대 서비스로 프리미엄 고객 혜택을 강화한다. KB금융은 그룹 최고의 전문가들이 고객 중심의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종합자산관리센터 ‘KB 골드앤와이즈 더 퍼스트’를 통해 현대백화점 최상위 고객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KB 골드앤와이즈 더 퍼스트’ 고객이 현대백화점을 이용할 경우, 퍼스널 쇼퍼 동행 등 쇼핑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한다.

/안상미 기자



‘운정 아이파크 시티’ 투시도.

/현대산업개발

‘운정 아이파크 시티’ 4일 1순위 청약

HDC현대산업개발 견본주택 오픈
전용 63~197㎡ 총 3250가구 규모
평균 분양가 3.3㎡ 당 1894만원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주말 ‘운정 아이파크 시티’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경기 과천시 서패동 일원에 들어서는 ‘운정 아이파크 시티’는 지하 2층~지상 29층, 25개동 규모로 전용 63~197㎡ 총 3250가구에 구성된다. 남향 중심 배치와 대규모 조경,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예정이다.

단지에는 시그니처필드·아트필드 등 다섯 가지 테마 조경과 수영장, 휘트니스, 독서실, 시니어라운지 등이 마련되며, 비대면 진료 등 스마트 커뮤니티 서비스도 도입된다. 4-베이(전면을 향한 방이나 거실의 수) 판상형 중심 설계와

다양한 수납공간, 알파룸·룸인룸 구조 등으로 공간 효율을 높였고, 홈네트워크와 안면인식 출입 시스템을 적용해 편의성과 보안을 강화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운정중앙역을 이용하면 서울 주요 도심에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으며, 자유로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도 가깝다. 이마트,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 생활 인프라와 심학중·고 등도 인접해 있다.

청약은 오는 3일 특별공급, 4일 1순위, 5일 2순위로 진행되며, 평균 분양가는 3.3㎡당 1894만원이다. 계약금 5%(1차 1000만원 정액제)와 6개월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분양 관계자는 “GTX-A 접근성과 메디컬클러스터 개발 호재로 주거와 투자 수요 모두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순익 12조 돌파한 4대 은행, 연체율 경고등

3분기 누적 당기순익 10.06% ↑
가계대출 강화로 기업대출 확대
경기회복 부진에 연체율 0.3%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1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체율 또한 오르고 있어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은행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2조1419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해 10.06% 증가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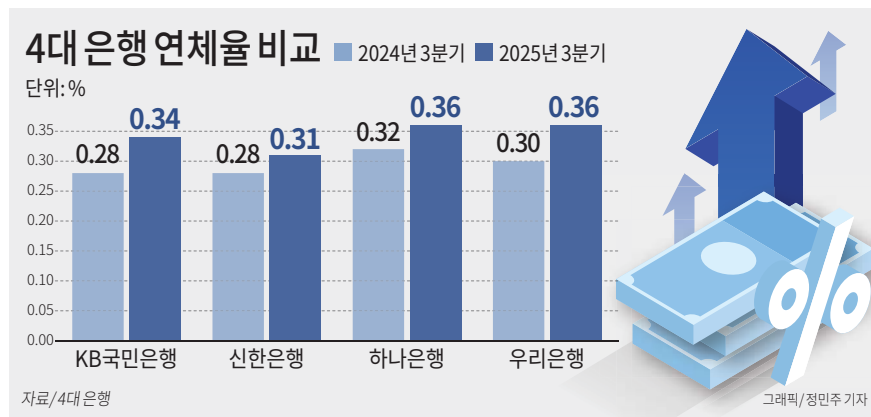
KB국민은행은 3분기 누적 기준 3조3645억원의 순이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6179억원) 대비 28.52% 증가했다.

신한은행은 올 3분기까지 3조3561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하나은행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3조31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25억원(12.68%) 늘었다.

우리은행은 누적 2조288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금리인하 국면에서도 대출자산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자이익이 늘어난 영향이다.

문제는 늘어난 당기순이익 만큼 연체



율이 오르고 있다는 것. 4대 은행의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평균 0.2%대에서 올 3분기 0.3%대로 상승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3분기 0.28%에서 올 3분기 0.34%로, 우리은행은 같은 기간 0.3%에서 0.36%로 각각 0.06%포인트(p) 올랐다. 신한은행은 0.28%에서 0.31%로 0.03%p, 하나은행은 0.04%p 상승했다.

4대은행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기업대출을 확대하면서 기업대출 연체율이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6월말 기준 0.36%로 총대출채권의 연체율(0.33%)보다 0.03%p 높다. 국민은행의 가계대출이 총대출채

권 연체율보다 0.04%p 낮은 것과 대비된다.

나머지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도 총대출채권보다 높았다. 신한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4%로 0.06%p 높았고, 하나은행은 0.46%로 총대출채권의 연체율(0.38%)보다 0.06%p 높았다. 우리은행도 같은 기간 기업대출 연체율이 0.48%로 총대출채권 연체율(0.4%)을 0.08%p 상회했다.

이 같은 현상은 경기 회복이 더뎠지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경기가 활력을 되찾지 않으면 기업대출을 늘린 은행에도 부담을 줄 전망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iM금융, 5년간 45조 생산적 금융 공급

iM금융그룹은 향후 5년간 총 45조원을 투입해 생산적금융과 지역금융을 확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iM금융그룹은 정부의 생산적금융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향후 5년간 생산적금융 38조5000억원, 포용금융 6조5000억원 등 총 45조원을 공급할 계

획으로, 생산적금융은 지역금융(대경권·동남권·중부권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번 계획은 중소·혁신기업, 지역 전략산업의 성장 기반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마련됐다.

/안승진 기자 asj231@

최태원, ‘AI 데이터센터 울산’ 진두지휘… “네번째 퀀텀점프”

(SK그룹 회장)

그룹 핵심 계열사 역량 총동원
반도체·건설 등 통합 생태계 구축
“AI 강국 도약의 출발점이 될 것”

SK그룹이 울산에 초대형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세우며 산업지형 변화의 중심에 섰다. 에너지·건설·통신 등 그룹 핵심 계열사가 총결집한 이번 프로젝트는 비수도권 제조도시를 ‘AI 허브’로 전환시키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SK에코플랜트, SK가스가 비수도권 최대 규모 AI 전용 시설인 ‘SK AI 데이터센터 울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설은 고성능 연산 인프라와 냉각·전력 효율성을 모두 갖춘 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센터다. AI 반도체 연산을 위한 고밀도 GPU 장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센터보다 10배 이상의 전력과 냉각 용량이 필요하다.

최태원 SK 회장은 AI 전용 데이터센



최태원 SK그룹 회장(오른쪽)이 지난달 31일 젠스항 엔비디아 CEO와 만나 AI전환 로드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한상의

터를 에너지, 정보통신, 반도체에 이은 그룹의 4번째 퀀텀 점프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시공을 맡은 SK에코플랜트는 반도체 FAB 등 고난도 산업설비 경험을 바탕으로 MEP(기계·전기·배관)솔루션을

적용, 공랭식과 수랭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냉각 시스템을 도입했다. 전력·통신·냉수 공급망을 이중화해 무중단 가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으며, 설계 단계부터 BIM(건축정보모델링)과 CFD(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으로 공기 흐름과 열 전달을 사전 검증했다.

SK에코플랜트는 데이터센터 시공을 넘어서 ‘AI 인프라 개발사’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스마트데이터센터 사업그룹을 신설해 사업개발부터 EPC(설계·조달·시공)까지 자체 수행해왔으며, 최근에는 연료전지 기반 전력공급·냉각 기술(WHRC)을 내재화했다.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해 냉각에 재활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에너지 공급망은 SK가스가 맡았다. 한국석유공사와 합작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은 LNG 저장탱크를 기반으로 울산 전역에 연료를 공급하고, 인근 SK멀티유틸리티 발전소

는 LNG·LPG 복합 발전을 통해 데이터센터에 경쟁력 있는 전력을 제공한다. SK가스는 향후 LNG 냉열을 산업용 냉각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통신 부문에서는 SK텔레콤이 전국 AI 인프라망 구축을 주도한다. AI 데이터센터, GPUaaS(서비스형 GPU), 엣지 AI를 축으로 하는 ‘AI 인프라 슈퍼하이웨이’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울산을 지정했다. 향후 GW(기가와트)급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로 확장해 글로벌 시장 진출도 염두에 두고 있다.

SK그룹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AI, 에너지, 건설, 반도체를 잇는 그룹형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인프라 선도기업’으로 도약을 노리고 있다.

SK 관계자는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의 기초 체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라며 “AI 강국 도약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허세홍 GS칼텍스 사장(맨 오른쪽)과 임직원들이 GS칼텍스 제3회 DT Day에 참여하고 있다. /GS칼텍스

GS칼텍스

디지털·AI 전환 성과 공유

GS칼텍스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GSE타워 본사에서 사내 혁신 축제 ‘제3회 딥 트랜스포메이션 데이’를 열고 디지털·AI 전환(DAX) 성과를 공유했다고 2일 밝혔다.

딥 트랜스포메이션 데이는 GS칼텍스가 업계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마련한 현장 중심의 행사로, 임직원들이 직접 추진한 혁신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교류의 장이다.

매년 현장을 찾는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은 부스를 운영하는 구성원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며 열정과 노력을 격려했다.

허 사장은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새로운 동료”라며, “데이터와 시스템 기반에 AI를 결합해 더 빠르고 정교한 의사결정,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협업이 가능한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철강업계, 美 직접진출·인프라 확장… 관세장벽 넘는다

고율 관세 여전… 현지화 전략 강화
포스코 美 2위 철강사 지분 인수 추진
현대제철 현지 제철소 건설 속도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철강에 대한 50% 고율 관세가 유지되면서 철강업계가 정면 돌파에 나섰다. 포스코는 미국 2위 철강사 클리블랜드클리프스와 손잡고 ‘K스틸 얼라이언스’ 구축에 나섰다. 현대제철은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로 ‘탈(脫)관세’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에서 반도체, 자동차 등 전략 품목의 관세가 하락했지만 철강에 적용 중인 고율 관세는 그대로 유지됐다. 미국은 철강을 ‘국가안보 품목’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협상 대상에서 일찌감치 제외됐기 때문이다. 미국 관세는 철강 원자재뿐만 아니라 변압기와 가전 등 철강이 들어간 파생상품

400여개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 철강 업계는 코너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내 1, 2위 철강사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미국 현지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고관세 돌파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미국 2위 철강사 클리블랜드클리프스와 손잡으면서 고관세 탈출을 모색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내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자해 이 회사 지분 10% 이상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올해 4분기 중 계약 체결이 예상된다.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연 1727만 톤의 조강 생산능력을 보유한 미국 2위 철강사로 자동차용 강판 시장 점유율은 45%에 달한다. 포스코가 지분을 확보하면 ‘미국산 인정 효과’를 얻어 고율 관세를 우회할 수 있다.

포스코는 당초 현대차그룹과 함께 루이지애나에 제철소를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가동까지 최소 4년이 걸리는 중장기 사업인 만큼 내부에서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클리블랜드클리프스가 보유한 미네소타 광산과 인디애나·오하이오 제철소 등 일관 체계를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포스코홀딩스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 6월 말 기준 7조원 이상으로 오는 2027년까지 1조2000억원 추가 현금 창출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추가적으로 1조~3조원 규모 미국 전략 투자를 단행하더라도 재무적 감당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현대제철도 루이지애나주에 8조5127억원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 중이다. 오는 2029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연산 270만톤 규모의 자동차강판 전용 제철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직접환원철(DRI) 설비와 전기로·열연·냉연공정을 갖춘 저탄소 체제를 구축한다. 현대제철은 이미 현지 법인을 세우고 항만 인프라·전기료 등 인센티브 협상을 진

행 중이다. 한미 무역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사업 추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철강사의 ‘현지화 전략’은 단순한 관세 회피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생존 전략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인프라 확충과 전기차 전환으로 철강 수요가 꾸준히 증가 중이다. 실제 올해 미국 내 철강 수요는 전년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중국의 감산 조치로 국제 열연강판 가격은 톤당 600달러에서 700달러 수준으로 3개월 만에 17% 상승한 만큼 미국 시장은 가격 변동성이 낮고 마진율이 안정적이어서 고부가 제품 중심 기업엔 최적의 시장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단순 수출보다 미국 현지 완제품 생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보후무역이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통상외교와 기업의 투자전략이 병행돼야 실질적 돌파구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HD현대-지멘스, 美 조산산업 재건 ‘맞손’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플릿’ 기술 실증

현대화·기술 경쟁력 강화 MOU

HD현대가 독일 지멘스와 손잡고 미국 조선업의 디지털 전환과 현대화에 나선다.

HD현대는 최근 경주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지멘스와 ‘미국 조선산업의 현대화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미국 조선소의 설계 품질 제고, 공정 리스크 최소화, 비용 절감 등 전반적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HD현대의 선박 건조 노하우와 지멘스의 디지털 트윈·비즈니스 플랫폼을 결



HD현대와 지멘스가 ‘APEC 2025’ 행사가 열린 경주에서 ‘미국 조선산업의 현대화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 왼쪽부터 지멘스 조 보먼(Joe Bohman) CTO, 문상민 HD현대 글로벌 전략부부장).

합해 생산 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유혜은 기자 dhledhale@

HTX 업무협약… 운송 인프라 기여

현대자동차그룹이 싱가포르 정부와 손잡고 미래 모빌리티 관련 기술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경주엑스포대공원 내 K-테크 쇼케이스 행사장에서 싱가포르 내무부 산하 과학기술청(HTX)과 ‘모빌리티 협력을 바탕으로 한 혁신 기술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현대차그룹과 HTX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싱가포르 정부가 운영하는 플릿(Fleet) 차량을 대상으로 기술 실증을 실시한다. 아울러 로보틱스와 수소 등 미래 기술 전반에 걸쳐 공동 연구와

적용 가능성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싱가포르 내무부의 차량 운영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8년 말까지 다목적 모듈형 전동화 플랫폼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현대차그룹은 모듈형 구조가 적용된 기아 목적기반 모빌리티(PBV)를 기반으로 한 설루션을 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PBV를 구성하는 기술적 요소를 활용해 운영 플릿 플랫폼을 통합하고, 토털 모빌리티 설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실증 사업은 향후 싱가포르 내무부의 전기차 전환 정책과도 연계해 싱가포르 정부의 지속 가능한 운송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성운 기자 ysw@

한진, 원클릭 커넥트 행사

5일 하반기 웨비나… 글로벌 쇼핑 지원

한진이 글로벌 커머스 파트너와 국내 유망 셀러를 연결하는 교류 행사인 ‘한진 원클릭 커넥트(One Click Connect)’를 통해 K-브랜드의 연말 글로벌 쇼핑 시즌 공략을 지원한다.

한진은 오는 5일 ‘원클릭 커넥트’ 하반기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원클릭 커넥트’는 올해부터 한진이 국내 셀러를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과 트렌드를 공유하고, 해외 파트너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온·오프라인 교류 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 알리바바닷컴과 틱톡코리아가 함께한 첫 웨비나에는 200여 개 국내 기업이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웨비나는 연말 쇼핑 대목을 앞둔 K-브랜드의 수출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특히 최근 주요 이슈로 떠오른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글로벌 진출 전략 조정, 판매 국가 다변화 방안을 설명한다. 이어 11월 메가와리 등 대형 글로벌 쇼핑 이벤트 대응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한진 관계자는 “국내 셀러들이 한진의 파트너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에 있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글로벌 쇼핑 시즌을 앞두고 K-브랜드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와 협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e@



지난달 31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2025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 개막식에서 (왼쪽 2번째부터)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성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등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중기부

‘2025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 성료

K-소상공인 저력 다시 빛났다

이틀간 2500명 모여 성과 공유
유공자 21명 등 정부 포상 진행
기능경진대회서 기술력 경쟁
전통·AI 결합한 혁신 현장 눈길
한성숙 장관 “성장·안전망 강화”

올해로 20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서 'K-소상공인'의 저력이 다시 한번 빛났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25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는 '오늘을 여는 소상공인, 내일을 잇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총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이틀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첫 날 개막식에선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정부 포상 21점, 기관장 표창 126점이 돌아갔다.

은탑산업훈장은 에너지 절약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새로운 시공 기법을 소개

하고 어려운 가정을 위해 무료 보일러 점검 등 사회 공헌을 인정받은 공로로 서진종합건축설비 서대로 대표가 수상했다.

또 소공연 연천군지부장을 맡으면서 한탄강큰집을 운영하고 있는 양연숙 대표는 업종 간 협력과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철갑산업훈장을 받았다.

개막식에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틀간 한국육외광고협회중앙회, 대한제과협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한국화원협회, 한국조리기능장협회가 주관한 기능경진대회에는 전국의 소상공인 1540여 명이 참가해 광고물 제작, 제빵, 메이크업, 화환, 조리 등 부문별로 갈고 닦은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매일아침 희

망으로 가게문을 여는 소상공인의 역동적인 오늘이 있기에, 내일의 대한민국은 더욱 빛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또 연합회 정책연구소 설립,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윈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하며 이를 위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 소상공인 정책과 복지의 구조적인 혁신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한성숙 장관은 전시장을 둘러본 후 자신의 SNS계정에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정책을 소개하는 글로벌 상권 전시관, 소공인 특별 전시관, 그리고 상생협력 사례 전시관까지 소상공인 정책과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면서 “특히 나전칠기 명장의 전통 수공예 작업, 장인의 손길을 AI로 기록하는 스마트 제조·연구기술, 소상공인의 AI 학습과 디지털 교육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과 전통이 함께 나아가는 미래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르노코리아, ‘패밀리 SUV’로 실속 공략

고급리 속 합리 소비층 집중 공략
코리아세일페스타서 역대급 혜택

고급리 자동차 할부의 부담 확대 등으로 차량 교체 수요가 위축되면서 소비자들은 구매 시점 자체를 늦추거나 비용 대비 효익을 면밀히 따지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업계는 구매를 유도하던 시대에서, 구매를 납득시키는 시대로 바뀌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68만6506대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시장은 고급리 영향으로 가격 경쟁력과 상품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시장 변화에 맞춰 수요 비중이 높은 패밀리 SUV 중심으로 라인업을 촘촘하게 구성해 실질적인 가성비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주력 모델 그랑 Koleos는 동급 최고 수준의 실내 공간과 안정성, 연료 효율 등을 갖춰 출시 1년 만에 5만 대 판매를 넘어섰다. QM6는 준중형 대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특히 LPG 모델이 스테디 셀러로서 꾸준한 선택을 받고 있

다. 아르카나는 세단급 예산으로 SUV를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며, 세닉 E-Tech 100% 일렉트릭은 LG에너지솔루션의 NCM 배터리를 채택해 신뢰성을 확보한 순수 전기차다.

이 같은 라인업 기반 위에서, 르노코리아는 2025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10월29~11월16일) 역대 최고 수준의 혜택을 적용했다. 대표적으로 ▲그랑 Koleos 최대 350만원 ▲QM6 최대 490만원 ▲세닉 E-Tech 최대 470만원 ▲아르카나 최대 80만 원 상당 옵션/액세서리 혜택 등 실구매가 부담을 줄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르노코리아의 전략은 단순한 가격 할인 정책이 아닌, 합리적인 선택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 SUV 시장은 가족 단위 수요와 실용성 중심 선택이 더욱 강화되는 가운데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속에서 르노코리아의 모델 구성은 '동일 예산 안에서 더 큰 활용성'이라는 소비자 트렌드와 정확히 맞물린다.

/양성운 기자 ysw@

CJ대한통운, 30년간 한국암웨이와 신뢰 동행

1억1000만건 배송, 동반성장 상징
전국 인프라 기반 맞춤형 솔루션

CJ대한통운과 한국암웨이의 물류협업이 올해로 30년을 맞았다. 그동안 CJ대한통운이 배송한 한국암웨이 택배 상품은 누적 1억1000만 건에 달했다. 물류업계에서 이같은 장기계약은 매우 드문 사례다. 이는 CJ대한통운이 보유한 전국 단위 인프라와 안정적 운영 역량, 맞춤형 물류 솔루션에 더해 양사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이 장기 협력의 토대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한국암웨이와 물류협업 3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30 YEAR SOF TRUST, Together Towards Tomorrow'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양사는 1995년 11월 첫 택배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CJ대한통운은 전라도와 경상도 일부지역을 시작으로 1997년부터는 전국에 있는 한국암웨이 소비자가

언제든 편리하게 제품을 받아볼 수 있도록 배송권역을 확장했다.

2000년에는 협업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전주·강릉 지역에 위치한 한국암웨이 '비즈니스&브랜드 센터'를 위탁 운영하며 물류를 넘어 제품 판매 및 리테일 운영 영역까지 파트너십의 외연을 넓혔다.

이후로도 CJ대한통운과 한국암웨이는 혁신적인 배송 서비스 협력을 통해 고객들에게 최적의 쇼핑경험을 선사하는 데 주력했다. 대표적으로 2004년 서울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배송하는 '타임택배'를 도입했고, 2014년에는 항공운송 기반 제주도 지역 익일배송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와 함께 전국 300여 개의 택배 거점을 기반으로 익일배송률을 업계 최고 수준인 최대 99.7%까지 끌어올렸고, 올해부터는 '매일 오네(O-NE)' 서비스를 도입하며 한층 편리하고 안정적인 배송환경도 완성했다.

/김승호 기자

세아·동양AK, 항공용 합금 수출 본격화

보잉·에어버스 공급망 진입 추진
창녕 신공장 건설로 생산 확대
글로벌 항공소재 수요 급증세

글로벌 항공기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내 항공소재 기업들도 공급망 외연을 넓히고 있다. 세아항공방산소재와 동양AK코리아가 그 중심에서 민·군 복합 항공소재 생산체계를 고도화하며 보잉·에어버스·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 등 글로벌 제작사 공급망 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용 알루미늄 합금 기업들은 기존 방산 중심 공급망에서 상업용 항공기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항공기 구조재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알루미늄 합금은 고강도와 내식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고부가 소재로, 글로벌 항공기 생산량 회복과 함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세아항공방산소재는 경남 창녕 대합산단에 연간 770톤 규모의 고강도 알루미늄 신공장을 구축한다. 오는 2027년 상반기 준공 후 하반기부터 상업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며 보잉, 엠브라에르, IAI 등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에 소재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창원공장에서도 군용기와 항공엔진용 고강도 알루미늄



세아항공방산소재의 다양한 크기의 고강도 알루미늄 소재가 야적장에 적재되어 있다. /세아홀딩스

소재를 양산해왔으며, 이번 창녕 신공장은 늘어나는 항공소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증설로 풀이된다.

시장조사업체 24케미칼리서치는 세계 항공우주용 알루미늄 합금 시장 규모가 지난 2024년 47억8000만 달러에서 오는 2032년 81억6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평균 성장률은 6.8%에 달한다. 보잉 737 MAX, 에어버스 A320neo 등 연료 효율이 높은 상업용 항공기의 생산이 팬데믹 이후 빠르게 회복 중이고, 각국의 국방비 확대에 따른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이 맞물리며 항공소재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고 있다. 여기에 위성·발사체 등 우주산업

성장세가 더해지며 특히 극저온·고강도 특성을 갖춘 '7000계(아연계) 고성능 합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또 다른 선도기업 동양AK는 민항기용 항공소재 상용화를 위해 필수 품질·공정 요건을 갖춰 승인까지 완료한 뒤 납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IAI·보잉 민항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구매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세종 본사 제3주조공장(연산 5만 톤)에서 1000~7000 계열(순수 AI부터 고강도 합금까지)의 항공·방산용 슬래브·빌렛을 생산하며, 특히 2024계(구리계), 7075계(아연계) 고강도 합금을 국산화해 주조, 가공, 출하로 이어지는 일괄 체계를 마련하기도 했다. 동양AK는 그간 KAI·한화에어로스에 Aerospace에 군용기 및 항공엔진용 소재를 공급하며 레퍼런스를 쌓아왔다.

전문가들은 항공소재는 인증만 수년이 걸리고 시험·평가 비용도 크기 때문에 국내 업체가 쉽게 진입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이 제한되는 구조여서 수익성 방어력이 높다는 평가다. 실제 세아항공방산소재는 올해 상반기 매출 660억원, 영업이익 134억 원(영업이익률 20.3%)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에스원, AI 기반 안티드론 솔루션 선보여

공항·항만 등 기반시설 보안 강화

에스원이 인공지능(AI) 기반 안티드론 솔루션으로 공항과 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

에스원은 2일 불법 촬영·기밀 유출·시설 침입 등 드론에 의한 보안 위협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안티 드론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에스원의 이 솔루션은 ▲'RF 스캐너·레이더'를 활용한 불법 침입 감지와 실시간 추적 ▲'드론 탐지 AI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한 비행 패턴·형체 분석 ▲'주파수 간섭 기술'을 활용한 불법 드론 실시간 무력화 조치 등을 제공한다.

RF 스캐너는 드론과 조종기 간 통신 신호를 포착할 수 있어, 드론의 위치·속

도·방향을 추적해 관제사 개입 없이도 빠르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다.

또 AI 알고리즘이 비행 패턴과 형체를 분석해 비행기나 조류를 실제 드론과 자동으로 구분한다. 고배율 광학 줌을 탑재한 EO(Electro-Optical) 카메라로 수㎞ 떨어진 소형 드론까지 선명하게 포착할 수 있다.

IR(Infrared) 카메라는 모터의 열을 감지해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드론 추적이 가능하다.

에스원 솔루션은 현장 출동 없이도 드론을 즉시 무력화할 수도 있다. 주파수 간섭 기술로 드론과 조종기 사이의 통신을 교란해 출발지로 되돌리거나 안전한 지점에 강제 착륙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양성운 기자



AI·Cloud·연계 플랫폼 초월 기업 메타빌드

AI LLaMON Platforms

상용/SaaS 하이브리드형

AI 연계미들웨어·디지털트윈관제플랫폼 시장점유율 1등 기업

AI통합플랫폼 (LLaMON)

LLM·RAG·MLOps, Agent

LLM/sLLM 모델 및 튜닝

RAG 파이프라인도구

멀티 AI에이전트도구(MCP/A2A)

Document/민원상담 AI

디지털휴먼플랫폼 (Kelver One)

연계미들웨어 (MESIM)

시장점유율 1위
[SaaS or On-Premise]

APIG/ESB/망/SAP연계

AI 연계/장애 어시스턴트

DATAHUB

디지털트윈관제플랫폼 (Kelver Twin)

교통·도시·산단·건설

자율차·철도 항공·드론

레이더·AI영상검지



통신사, 대규모 인적쇄신 돌입… 해킹 등 리스크 관리 ‘방점’

SKT 정재현 선임 CEO 선임
KT 내일 차기 CEO 선임 안건 논의
LG U+ 홍범식 리더십 시험대 올라

대규모 해킹 사태 여파로 이동통신 3사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경영진 책임론이 커지면서 인적 쇄신이 단행되거나 시험대에 올랐다.

2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잇따른 해킹 사태를 겪은 통신 3사 중 SK텔레콤과 KT가 사장단 인사를 추진한다.

SK텔레콤은 가장 먼저 대표를 교체했다. SKT는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유영상 대표가 물러나고, 정재현 대외협력 사장을 선임 CEO로 선임했다. 정 사장은 판사 출신으로, SKT 역사상 첫 법조인 출신 수장이다. 대규모 해킹 사태 이후 리스크 관리와 대외 대응 능력을 중시한 인사로 해석된다.



홍범식(왼쪽 세번째부터) LGU+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김광일 MBK 대표이사,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가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SKT는 지난 4월 유심 해킹 사고 수습 과정에서 고객 보상비 5000억 원대와 과징금 1348억 원이 반영되며, 2000년 1분기 이후 첫 영업적자(522억 원)를 기록했다. 유 전 대표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 AI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KT 역시 리더십 위기 국면에 놓였다. 김영섭 대표는 무단 소액결제 사고 대응 미흡으로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고, 정부 조사 방해 의혹으로 경찰 내사까지 진행 중이다. 실적 개선세로 연

임이 예상됐으나 해킹 사태로 연임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졌다.

김영섭 대표는 국감에서 “총체적 경영 책임을 지겠다”며 사실상 연임 포기 의사를 내비쳤고, 조만간 이사회를 통해 거취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KT 이사회는 4일 회의를 열어 차기 CEO 선임 추진 안건을 의결하고, 이달 중 대표이사 후보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

KT 정관에 따르면 대표이사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까지 사내의 후보군을 구성해야 한다. 김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까지다.

차기 대표 선임은 사외이사 8명으로 구성된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주도한다. 위원회는 서류 및 면접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 1인을 추천하며, 사내이사는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선발된 후보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확정된다.

사내 후보는 회사 또는 계열사 재직 2

년 이상, 부사장 이상 직급, 경영 전문성과 KT 사업 이해도를 갖춰야 한다.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기업경영 경험과 전문 지식, 커뮤니케이션 역량, 글로벌 시각의 리더십, 산업·시장·기술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를 추천한다.

김 대표는 “사퇴를 제외하지 않는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가능성을 열어뒀고, “이사회에서 입장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김 대표의 거취 발표가 향후 공모 절차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LG유플러스는 상대적으로 대표 교체 가능성이 낮다. 홍범식 대표의 재임 기간이 짧고 피해 규모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감 기간 서버 폐기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초기 대응 부실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KT, 엔비디아·삼성전자 등 ‘AI-RAN’ 동맹 구축

(차세대 통신 기술)

기술·서비스 등 연구개발 업무협약
AI 기반 네트워크 기술 상용화 가속

KT는 엔비디아, 삼성전자, SK텔레콤, LG유플러스, ETRI, 연세대학교 등과 함께 ‘AI-RAN(인공지능-무선접속망) 기술 및 서비스의 공동 연구개발과 글로벌 확산’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AI-RAN은 기지국과 네트워크 서버 간 오가는 트래픽 데이터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는 차세대 통신 기술이다. 이번 협약은 한국을 AI-RAN 글로벌 허브로 육성하고, AI 기반 네트워크 기술의 상용화와 국제 표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력에는 국내외 주요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해 기술 공동 연구·개발, 실증, 글로벌 확산, 표준화까지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KT와 엔비디아를 비롯한 6개 국내 기관은 단계별 기술 협력, 공동 워킹그룹 운영,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 다양한 협업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세대 홍종일 연구처장, ETRI 백용순 입체통신연구소장, KT 미래네트워크연구소장 이종식 전무, 엔비디아 김희준 전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 LGU+ 네트워크선행개발담당 이상현 상무, SKT 인프라기술본부장 류탁기 전무,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김승일 상무(왼쪽부터)가 AI 네트워크 MoU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T는 지난 1월 AI-RAN 얼라이언스에 가입한 이후 AI 네이티브 네트워크 기술 연구를 본격화했다. 해당 협의체에는 엔비디아,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주요 통신사와 IT 기업, 학계 등 110여 개 기관이 참여해 AI와 무선망 기술 융합을 통한 차세대 네트워크 혁신 및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KT는 지난 9월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사용자 맞춤형 이동성 및 연결 안정화’ 기술을 AI-RAN 얼라이언스

워킹그룹 1에 신규 연구 과제로 제안했으며, 현재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기술은 사용자의 이동 경로와 네트워크 환경을 AI로 분석해 문제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사용자별 최적 네트워크 설정을 자동 적용하는 기능을 갖췄다. 이를 통해 셀 단위 설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

KT는 11월 초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AI-RAN 얼라이언스 전체 회의에서

이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실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지난 8월에는 국내 최초로 상용 5G 네트워크에 AI-RAN 기술을 적용해 고객 체감 속도와 품질 향상을 검증했다.

이와 함께 KT는 아시아 최대 통신사업자 전략 협의체인 SCFA를 통해 일본 NTT도코모, 중국 차이나모바일 등 아시아 주요 통신사와 AI 네이티브 네트워크 분야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네이버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네이버(대표 최수연·사진)가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9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인터넷플랫폼 기업 중에서는 유일한 기록이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 5단계로 구분된다.

네이버는 2일 중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 경영 효율화 전반에 걸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상생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는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핵심 ESG 전략 아래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임팩트 펀드를 조성해 기술 기반 창업가와 지역 중소상공인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LG U+,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Simply. U+’ 선포

고객 중심 브랜드 캠페인 전개

LG유플러스는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Simply. U+(심플리. 유플러스)’를 선보이며 고객 중심의 브랜드 캠페인을 본격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신규 TV 광고 ‘오늘을 심플하게’ 편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일상을 단순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Simply. U+’는 고객이 느끼는 복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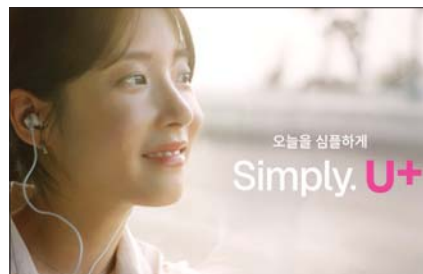
함과 불편함을 줄여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브랜드 철학을 반영한다. LG유플러스는 통신의 본질에 집중한 상품과 투명한 이용 조건, 쉬운 접근성, 명확한 메시지를 통해 고객이 ‘심플한 통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번 캠페인에는 고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Simple. Lab(심플랩)’도 포함됐다. 심플랩은 통신 생활에 도움이 될 아이디어를 고객이 제안하고, 실제 구현 과정을 함께 공유하는 서비스로, 개시 사를 만에 2000건 이상 제

안이 접수됐다. 고객 제안으로 탄생한 기능이나 상품은 향후 공개될 예정이다.

광고에서는 아버지가 통신사 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딸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앱’을 제안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LG유플러스는 이를 통해 고객과 함께 만드는 실질적 혁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외에도 입력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리해주는 ‘심플 번역기’, 고객의 버킷리스트를 실현해주는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모션이 함께 진행된다.



LG유플러스가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Simply. U+’ TV 광고를 론칭하며 본격적인 고객 중심 브랜드 캠페인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신규 TV 광고 스틸 이미지.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심플·맞춤·연결’의 브랜드 가치를 중심으로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브랜드 철학 ‘Simply. U+’를 다양한 채널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위메이드 ‘레전드 오브 이미르’ 동접자 14만명 돌파

위메이드는 지난 28일 전 세계 170개국에 출시한 MMORPG ‘레전드 오브 이미르’ 글로벌 버전이 동시 접속자 14만명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과 중국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출시 첫날 이용자가 몰리며 동시 접속자 13만명을 기록했고, 31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14만명을 넘어섰다.

북유럽 신화를 배경으로 신들의 물락 이후 혼돈에 빠진 세계에서 운명과 질서를 되찾는 전사들의 대서사시를 그린 작품으로, 위메이드엑스알이 개발을 맡았다. 언리얼 엔진 5를 기반으로 제작돼 사실적인 아트와 타격감 있는 전투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최빛나 기자

빚투 25兆로 치솟아… 증권사, 리스크관리·투자자보호 나서

신용거래용자 잔액, 연초比 61.15%↑
KB증권, 증권담보대출 일시 중단
키움증권, 대용비율 25~40% 하향

미래에셋·NH투자·한국투자증권
가산금리 조정해 대출이자율 유지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신용공여 한도가 소진된 증권사들이 잇달아 증권 담보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달 30일부터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예탁증권을 담보로 한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최근 신용공여 한도가 소진돼 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한 것이다. 매도주식담보대출(단기유동성용 대출)과 신용융자 매매는 가능하다. KB증권 관계자는 “금융투자업 규정에 의해 회사별 신용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증시 활황 속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를 늘리는 개인 투자자' 관련 이미지.

고, 최근 증시 상승에 따른 리테일 신용대출 금액 증가로 규정 준수를 위해 증권담보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

기자본 3조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는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맞춰야 한다.

지난달 19일 키움증권은 신용융자 유

형 중 대용비율을 25~40%로 하향하고, 현금비율도 10% 올렸다. 대용비율은 담보로 맡긴 주식의 '인정 가치 비율'을 나 타낸다. 대출 리스크를 줄여 투자자에게 더 보수적인 조건을 적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외에도 증권사들은 일부 종목의 위탁증거금률을 100%로 상향했으며, 특정 종목의 신용·대출 거래를 제한했다.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지난8월부터 기준금리는 낮췄지만 가산금리를 조정해 대출 이자율(최종금리)을 그대로 유지했다. 신용융자 수요가 급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한도 소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최근 빚투가 급격하게 늘면서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한도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빚투 개미'들이 증권사에서 주식 매수 용도로 빌린 신용거래용자 잔액은 지난달 30일 기준 잔고는 25조2726억원으로 연초 15조6823억원 대비 61.15%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5조6051억원, 코스닥시장 9조6674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금투협과 거래소는 증권사에도 신용융자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사전에 방적 투자자보호 조치를 주문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청년층과 50·60대 이상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신용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레버리지 거래를 자제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단기간내에 자금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융자 등을 활용해 변동성을 키우는 투자기법은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빚투 급증에 증권사들은 역대급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증권사들이 고객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는 대가로 받는 신용공여 수익은 1조3774억원으로 집계됐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미래에셋운용, 연기금투자플 주간운용사 1위

기재부 평가서 2회 연속 1위
2026~2029년 주간운용사 선정
제도 운영·발전 기여 인정 받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연기금투자플 주간운용사 선정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하며 2회 연속 주간운용사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투자플운영위원회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을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연기금투자플의 주간운용사로 최종 선정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정성평가의 전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1위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적극적인 전담인력 확충 등 투자플 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다수 항목에서 1위를 득점했다”고 평가했다.

연기금투자플은 기획재정부가 기금 및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해 2001년 도입한 제도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21년부터 주간운용사로 참여하며 ▲투자 다변화 ▲위험관리 고도화 ▲공공기관 예탁 확대 ▲교육·자문체계 확립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에 기여해왔다. 특히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올 2월 기획재정부 '연기금투자플 제도 개편안'의 방향에 맞춰 '공공투자플로의 진화'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기금에 대한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한편,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마케팅과 자문활동을 통해 거래기관 수와 예탁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투자플 최초 벤처투자 상품을 비롯해 해외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 상품 라인업을 강화해 예탁기관의 투자 선택지를 넓혀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앞으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OCIO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연기금투자플 주간운용사로서 제도 발전과 시장 확대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기관플랫폼 대표 이병성 부사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단순한 자산운용사를 넘어 예탁기관 여유자금 운용을 함께 책임지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연기금투자플 전담운용기관으로서 더 높은 전문성과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포상금 9370만원’

금융위, 예산 증액 추진 계획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포상금 937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열린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부정한 수단과 계획을 사용했다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녹취록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신고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조사결과 혐의자 6명을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검

찰에 고발했다.

이번 포상금 지급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강화의 일환으로, 금융위는 향후 제도 운영의 원활화를 위해 예산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관련 예산 확충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으며,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및 국회와 협의해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보해 달라”며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한국투자증권, 강원 아동들에 1억 간식후원

발달장애인 제작 간식세트 제공

한국투자증권은 강원 지역 아동들을 위해 1억원 상당의 간식을 후원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후원 물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브라보비버'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제작한 그레놀라, 쿠키, 견과류 세트 등으로 구성됐다. 해당 물품은 국제개발협력 NGO 지파운데이션을 통해 추천·삼척·태백 등 강원 지역 54개 아동복지시설에 전달되어 약 1500여명의 아동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오늘 선물한 건강한 간식이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따뜻한 나눔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아이들의 재능을 지원하는 중장기 후원 프로젝트 '꿈을



지난달 30일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꿈·희망 물품 전달식'에서 오석진 한국투자증권 홍보실장(왼쪽)과 정지민 지파운데이션 대외협력팀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꾸는 아이들'을 비롯해, 이번 10월에는 지역 아동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4호점을 개관했다. 또한, '한국투자 꿈 도서관' 사업을 통해 지역 복지시설 내 노후화된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허정윤 기자

고공행진 국내증시… ‘큰손·단타족’도 불장 합세

1억 이상 대량주문 52% 늘어
시가총액 회전율 0.57%

거액을 굴리는 '큰손' 개미들의 주식 시장 참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타족'들도 늘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들어 30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1억원 이상 대량 주문은 하루 평균 2만8729건으로 9월(1만8957건)보다 52% 늘었다.

지난달 개인의 일평균 대량주문 건수는 지난 2021년 8월(3만4543건) 이후 4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한 달간 코스피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기대와 미국 기술주 훈풍 등에 19% 급등했다.

개인의 1억원 이상 대량 주문이 가장 많이 몰린 종목은 삼성전자로 집계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들어 30일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의 대량 주문 건수는 총 6만243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공개하고 미국 인공지능(AI) 대장주인 엔비디아 대상 납품을 공식화한 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젠스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치맥 회동' 후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 주문 건수가 4만3787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기대에 더해, 지난달 역대 최대 3분기 실적을 공개한 영향이다.

한미 원전 협력 프로젝트 '마누가(MANUGA)'에 대한 수혜 기대감에 원전주인 두산에너지(2만9116건) 역시

3번째로 많이 주문했다.

뒤이어 네이버(1만8235건), 한화오션(1만7489건), 삼성SDI(1만3270건), 한미반도체(1만2980건), 현대차(1만855건) 등 순으로 주문이 많았다.

단타족도 늘었다.

지난달 코스피의 일평균 시가총액 회전율은 0.57%로, 지난 6월 0.63%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아졌다.

시가총액 회전율은 전체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의 비율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투자자 간 거래, 즉 손바뀜이 자주 일어났다는 의미다.

지난달 회전율은 6월과 2월(0.58%)에 이어 연중 3번째로 낮았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방산, 증권, 제약 업종의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기대와 실적 사이 키 맞추기 과정에서 순환매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하은 기자

고부가 메모리·선박이 버틴 수출 美 관세에도 10월 실적 ‘역대급’

산업부 “10월 수출 595억달러”
전년比 3.6%▲… 5개월째 플러스
반도체·선박, 사상최대 수출 건인
무역흑자 60억달러 17개월 연속
“한미 관세합의로 불확실성 완화”

10월 우리 수출이 반도체와 선박의 쌍끌이 호조에 힘입어 역대 10월 중 최대 실적을 거뒀다. 미국 관세 부담으로 자동차·철강 등 주력 품목이 주춤했지만,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와 해양플랜트 수출이 전체 상승 흐름을 견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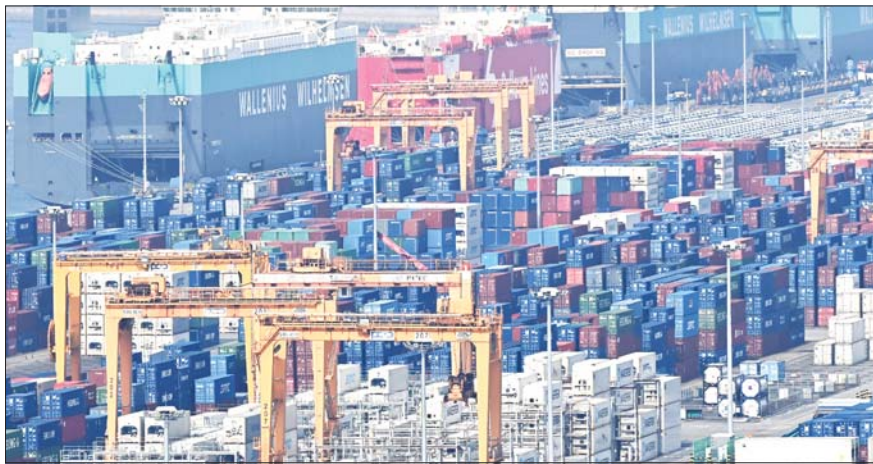
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6% 증가한 595억 7000만달러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수입은 1.5% 감소한 535억 2000만달러, 무역수지는 60억 6000만달러 흑자로 17개월 연속 흑자다.

지난달 주석 연휴로 조업일이 1년 전보다 이를 줄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29억 8000만달러로 14.0%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주석 연휴가 있었음에도 반도체와 선박 수출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을 떠받친 모습이다.

10월 수출 상승세를 이끈 것은 단연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은 157억 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5.4% 늘며 역대 10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6월 이후 월평균 150억달러 안팎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서버용 HBM(고대역폭메모리)과 DDR5 등 고용량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메모리 고가가격은 10월 기준 DDR5 8Gb가 7.0달러, 16Gb는 8.7달러로 전 분기 대비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선박 수출도 46억 9000만달러로 131.2% 급증하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중남미 해역으로의 대형 해양플랜트 인도가 본격화되면서 단일 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석유제품(38억 3000만달러, +12.7%) 역



30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시 수출 물량 증가에 힘입어 두 달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면 자동차(-10.5%), 철강(-21.5%), 일반기계(-16.1%) 등은 미 관세 영향으로 부진했다. 미국이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일부 산업용품 고율관세 조치가 본격 반영된 결과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중남미와 CIS(독립국가연합) 2곳만 증가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감소하거나 보합세를 보였다.

중남미 수출은 전년 대비 99.0% 급증한 47억 1000만달러로, 전 기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0년 6월 42억 2000만달러를 넘어선 역대 최고 기록이다. 이는 브라질·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해양플랜트, 조선기자재, 건설기계 등의 대형 프로젝트 인도가 집중된 영향이다. 최근 중남미 각국이 인프라 확충과 해양 개발 투자를 확대하면서 한국산 중공업 제품의 입지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CIS(13억 4000만달러, +34.4%)도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러시아·카자흐스탄 지역으로의 자동차부품·건설장비 수출이 늘면서 코로나 이후 최대 수준으로 회복했다.

반면, 대미 수출은 16.2% 감소한 87억 1000만달러로, 주요 교역국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자동차, 철강, 기계류 등 관세 부과 품목이 직격탄을 맞은 결과다.

대중 수출은 115억 5000만달러로 소

폭 감소(-5.1%)했지만, 두 달 연속 110억달러를 상회하며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반도체 중심의 공급망 회복과 중국 내 스마트폰·가전 수요 반등이 뒷받침됐다.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 부진으로 6.5% 감소(94억달러)에 그쳤다.

EU(51억 9000만달러, -2.0%), 인도(14억 9000만달러, -1.2%), 중동(15억달러, -1.3%)은 보합세를 보였고, 9대 주요지역 외 대만으로의 수출은 HBM 중심 반도체 호조세로 10월 중 최대실적인 51억 5000만달러(+46.0%)를 기록했다.

10월 무역수지는 60억 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누적 흑자 규모는 564억달러로, 이미 지난해 전체 흑자(518억달러)를 넘어섰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0월 29일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세부사항에 합의하면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며 “그간 우리 수출에 제약 요소로 작용한 불확실성이 관세인하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되면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미 금융 패키지가 양국의 제조업 부흥을 포함한 산업 경쟁력 발전을 가져오면서, 우리 기업에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KIAT·KOSTI, 수출제재 리스크 공동 대응

중견기업 전략물자 관리 강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무역안보관리원(KOSTI)이 중견기업의 전략물자 관리와 수출제재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KIAT는 지난달 31일 서울 조선펠리스 호텔에서 KOSTI와 ‘전략물자 관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전략물자란 일상이나 산업 현장에서 쓰이지만 군사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 수출입에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품과 기술,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협약에 따라, KIAT는 월드클래스 기업들의 전략물자·수출제재 관련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하고, ‘월드클래스 세르파’를 통해 컨설팅과 제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월드클래스 기업은 산업통상부와 KIAT가 세계 수준의 기업으로 키우기 위

해 선정하는 기업으로, 월드클래스 세르파는 2021년 출범한 범부처 기업지원 체계다. 기업들의 수출·금융·법률·인력·컨설팅 등 전방위 지원을 담당하며 현재 2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이번 협약으로 무역안보관리원이 23번째 참여기관으로 합류했다.

KOSTI는 전략물자 및 특정 국가 대상 제재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한 수출관리 방안과 제도 이행 절차를 안내한다. 이를 통해 중견·중소기업의 제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제공급망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전략물자 관리 대응력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되는 요소”라며 “KOSTI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협 “새농민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중심”

‘새농민중앙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농협중앙회가 ‘한국새농민중앙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새농민회는 1965년부터 농협중앙회의 ‘이달의 새농민상’을 받은 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회원 수가 현재 1만 2000여 명에 달한다.

2일 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경기 안성 농협창업농지원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행사는 지난 60년간의 새농민회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향한 비전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고 농협을 밝혔다.

강호동 회장은 “새농민회는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 농업발전의 뿌리를 지켜온 역사였다”며 “앞으로의 60년도 새농민이 혁신의 중심이 되어 지속가능한 농업과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가는 시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장에는 자립·과학·협동의 3대 새농민정신과 함께 이어온 발자취를 사진과 기록으로 전시한 전시관과 포토존 등이 마련됐다. 아울러 청년농업인 생산품 홍보관도 함께 운영됐다. 기념식에서는 새농민회 역사와 비전을 담은 기념영상 상영 등이 진행됐다. 또 농업·농촌 발전 유공자에 대한 정부표창과 농협중앙회 장 공로패가 수여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지난달 31일 경기 안성 농협창업농지원센터에서 ‘한국새농민중앙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농협

“실업급여 부정 수급, 자진 신고하세요”

노동부, 부정수급 집중신고 돌입
12월 2일까지 자진신고 접수
신고 땐 형사처벌·추징 감경

고용노동부는 11월 3일~12월 2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이내 부정수급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제한 기간(최대 1년)도 감경된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자진 퇴사 후 기존 거래처와 허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위장해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친·인척 사업장에 허위 고용신고 후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거나 휴직 중 근무하면서 허위 신청하는 경우 등이다.

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팩스·우편·방문 신고도 가능하며, 익명 제보도 허용된다.

노동부는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모성보호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언론 보도나 이미 수사 중인 사안, 익명 제보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 예방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부정수급은 추후 국가전산망, 제보나 탐문 등에 의해 반드시 적발되므로 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남부발전, 소상공인 지원 유공 장관상 수상

K-글로벌 프로젝트로 판로 개척

한국남부발전이 지역 소상공인의 수출 판로 개척과 경영 안정망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표창을 받았다.

2일 남부발전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지난달 31일 경기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우수단체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매년 ‘소상공인의 날(11월 5일)’을 기념해 열리는 행사로,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정부 포상식이다.

남부발전은 ‘K-소상공인 글로벌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유망 소상공인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지원하고,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부산외국어대학교 등과 협업해 해외 판로 개척을 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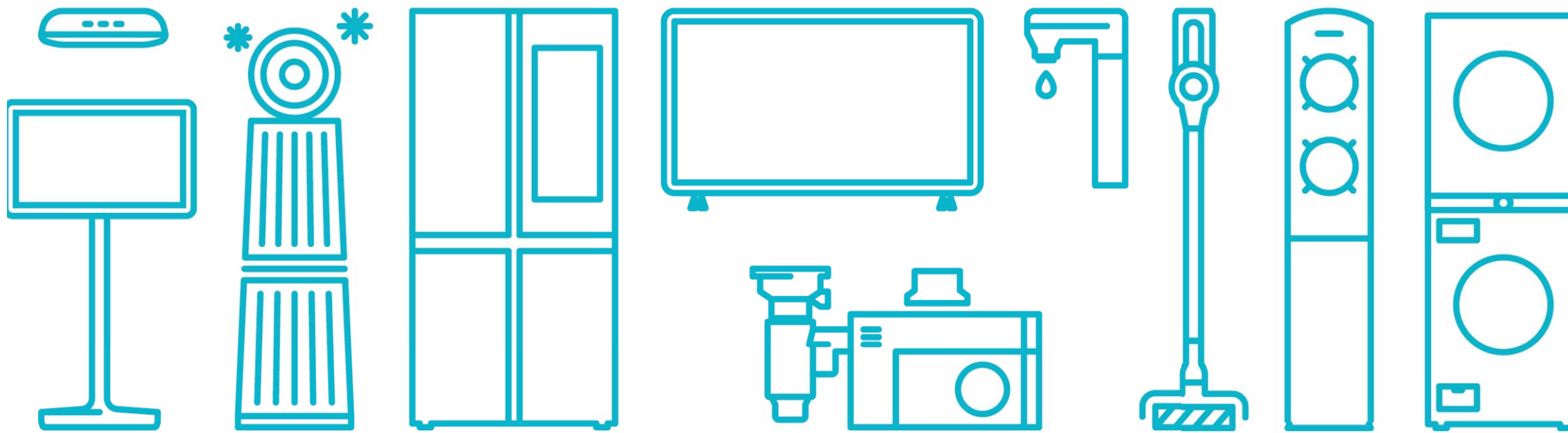
또 공공기관 최초로 소상공인 대상 ‘매출채권보험’ 지원 제도를 운용하며 거래대금 미회수 리스크를 줄이고 경영 안정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변희정 남부발전 상생협력실장은 “오늘을 여는 소상공인, 내일을 잇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처럼 소상공인이 미래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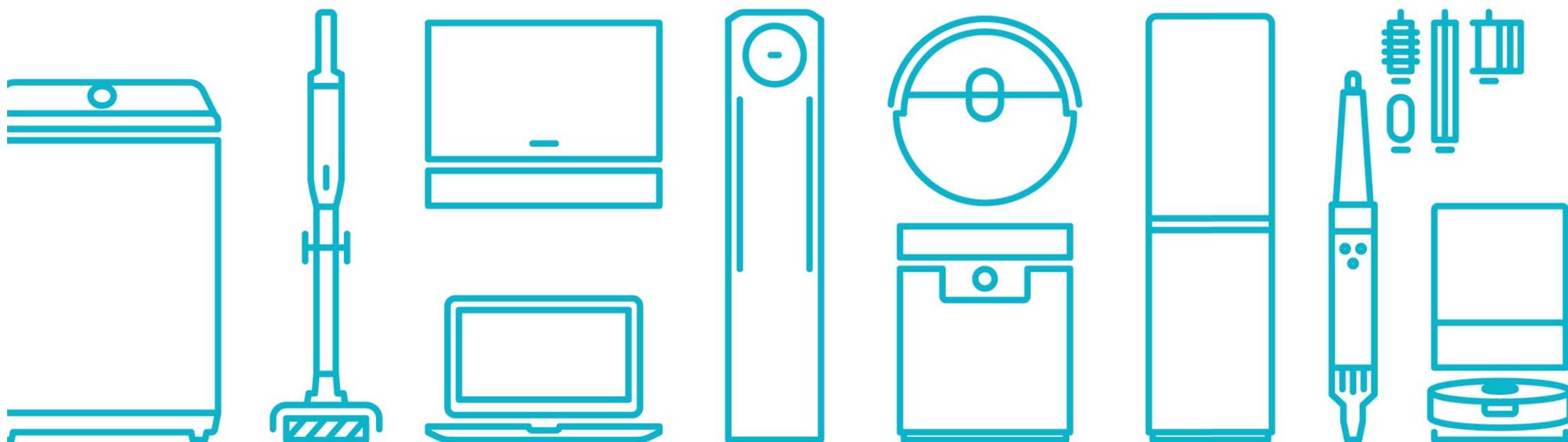
/세종=한용수 기자

 LG HelloVision

Hello rental



일시불로 안샀다 헬로렌탈로 잘샀다!



요즘 **잘** 나가는 가전! 최저가로 **잘** 사는 방법!

부담 없이 최대 60개월까지, 쓰면서 나눠내세요.

상담문의 1855-1082

rental.lghellovision.net 에서 원하는 가전을 찾아보세요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세요



경제파급효과 7.4조 육박… 경주, 글로벌 투자거점도시 부상

APEC 정상회의 폐막

경주시, 산업·문화 경쟁력 뿜내
세계 정상·기업 리더 등 눈도장
글로벌 투자·협력 중심지 기대

20년 만에 한반도로 돌아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성황리에 폐막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경주는 단순한 개최도시를 넘어 글로벌 투자 거점으로 변신을 본격화했다. 역사와 문화, 첨단 산업이 만나는 천년 고도 경주가 이번 APEC을 계기로 지역 경제에 남긴 의미와 향후 발전 방향을 살펴봤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딜로이트컨설팅의 공동 분석에 따르면,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로 인한 총 경제 파급 효과는 7조 4,000억 원에 달한다. 단순한 수치에 불과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경주 지역과 국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규모다. 더불어 고용 창출 효과도 2만 3,9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 고용 시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

이러한 경제 효과는 먼저 단기 직접



지난 27일 시민들이 경북 경주시 경주예술의전당 앞을 지나고 있다. /뉴스

효과로 약 3조 3,000억 원으로, 주로 숙박, 식음료, 교통, 시설 개보수 등에서 발생하는 내수 소비 증가다. 이는 AP EC 개최 기간 동안 약 21개 주요 회원국의 정상들과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경주를 방문하면서 직접적으로 창출된 소비 활동의 결과다. 한편 중장기 간접 효과는 약 4조 1,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수치들이 '추정치'일 뿐 확정된 효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경제 파급 효과의 규모는 방문객의 체류 일수, 1인당 지출액, 산업별 승수효과 등의 변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번 APEC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 중 하나는 경주가 글로벌 투자 거점 도시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지난달 2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한 'Invest Korea Summit 2025' 지방 현장 투자설명회는 캐나다, 중국,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인도, 남아공, 체코, 태국, 헝가리, 필리핀 등 10개국에서 온 외국인 투자자와 외신 기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주 엑스포대공원 내 APEC 경제전시관에서 경상북도와 경주시

의 투자환경 설명회를 청취했고, 철성대, 대릉원, 천마총 등 역사문화유산 현장을 방문하며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서의 경주의 강점을 직접 체험했다.

경주시는 이번 APEC 행사를 통해 천년의 역사와 문화 더 나아가, 미래산업과 글로벌 투자를 선도하는 국제 도시로 전세계에 각인 시켰다. 7조 4천억 원대의 경제 파급 효과와 2만 3,900여 명의 고용 창출은 단순한 수치를 넘어, 경주 지역과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세계 주요국의 정상과 글로벌 기업 리더들이 경주를 방문하면서 구축된 국제 신뢰와 네트워크다. 이는 향후 경주가 국제 무역, 투자, 협력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제 경주에게 남겨진 과제는 '호재를 어떻게 실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것인가'이다. 이번 APEC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도시 역량 강화와 중장기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면, 경주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투자 거점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규준 기자 ch9720@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북도-구글

AI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 '맞손'

경북도가 경주에서 '아태지역 AI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리셉션'을 개최하고 글로벌 기업 구글과 함께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경주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계적 기업 구글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지역에 접목해 혁신기업 성장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경북도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첨단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김해시

김해~밀양 고속도로 예타 통과

김해시가 김해~밀양 고속도로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국도교통부는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고 김해~밀양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타당하다고 최종 의결했다.

예타 통과에 따라 사업 시행 주체인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3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개통할 예정이다.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사업비 1조 4965억원, 총연장 19.8km 규모로 김해시 진례면과 밀양시 상남면을 잇는 노선이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울산시

'울산 스타트업 페스타' 개막

울산시가 3일과 4일 이틀간 중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2025 울산 스타트업 페스타(Ulsan Startup Festa)'를 개최한다.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울산시와 울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 주최하며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포함한 지역 15개 창업지원 기관이 공동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스타트업 주간으로 확장돼 11월 5일에는 울산청년지원센터 '울산 청년토크 콘서트'와 HD현대중공업 '2025 HD현대중공업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킹 행사'가 열리며 주말에는 미래와소프트웨어재단의 초·중학생 대상 '꿈찾기 캠프'가 진행된다.

/울산(경북)=손병호 기자

포항시, 'AI 혁신도시' 중장기 계획 추진

2030년까지 10만명 AI 인재 양성

포항시(시장 이강덕·사진)는 2030년까지 총 10만 명의 인공지능(AI)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지방정부가 대학·기업·글로벌 기관과 협력해 AI 인재 생태계를 조성하고, 포항을 대한민국 대표 AI 혁신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11개 인재양성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학위과정부터 산업 현장 실무까지 아우르는 '전 생애형 AI 교육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총 10만 명의 전문·실무형 AI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 산업 전반의 AI 활용 역량을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요 사업으로는 ▲포스텍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 ▲포스텍 산업인공



원사업 ▲SW미래채움 등이 있다.

포항시는 이들 사업을 통합 관리해 연구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AI 인재 허브 도시'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포스텍과 한동대를 중심으로 한 고급 연구인력 양성, 포항테크노파크와 RIST의 산업 실무인력 교육, 시민 참여형 SW미래채움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역 맞춤형 인재 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인재 유출을 최소화하고 산업의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 기반 산업혁신(AX)을 촉진해 신산업 창출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ESG 평가' 전국 1위

지속가능발전정책 성과 인정 받아

전남순천시는 ESG행복경제연구소가 실시한 '2025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ESG 평가'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부문 전국 1위에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연구소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106개 세부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수준과 행정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한 결과라고 시는 설명했다.

순천시는 ESG 행정 실천을 위해 환경 분야에서 국내 기초지자체 최초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가입,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AI 기반 재활용 분류 시스템 도입,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

운영했다.

사회 분야는 전남 최초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AI를 활용한 돌봄 복지 실현, 지능형 응급의료 시스템(AI앰불런스) 구축, 기후시민 학교,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우주항공 미래성장산업 육성 등이며 거버넌스 분야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평가받았다.

/순천(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부산시,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 속도

문체부 지원사업 선정… 299억 확보

부산시는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99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국비는 사업 첫 해인 내년 50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사직야구장 재건축 총 사업비 2924억원 중 지

방비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됐다.

시는 내년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28년~2030년 공사, 2031년 3월 개장을 목표로 재건축을 진행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새로운 사직야구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지역 경제 거점시설이자 스포츠·문화·산업이 어우러진 부산의 미래 자산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며 "시민 친화적인 명품 야구장이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박정환 "달서구에 시설관리공단 설립해야"

(달서구의회 의원)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대구 달서구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달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공공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이다. 현재 전국 70여 개 기초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며 전국적으로 꾸준히 추진되는 추세다.

달서구는 인구 약 52만 명으로 대구·경북 최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임에도 수많은 문화·체육·복지시설이 부설별로 분산 관리되거나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정환 달서구의회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해 운영의 전문성 강화, 예산 집행의 효율화, 공공서비스의 일관성 확보, 책임경영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공단 설립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해 구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의 첫걸음을 내딛고, 달서구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시설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이도식 기자

곡성군

'야간 어린이집 돌봄 사업' 추진

전남 곡성군이 아동 양육자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 어린이집 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곡성군은 오는 12월까지 어린이집의 정규보육 시간 외 양육자의 야근, 출장, 경조사 참여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곡성형 야간 어린이집 돌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 기관은 곡성읍의 '아해뜰 어린이집'을 선정했으며 돌봄 전담 보육교사 2명이 근무하고 있다.

/곡성(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유통업계 CEO, 국감 대신 해외로 불공정 거래 의혹 등 현안 공회전

김범석 쿠팡 의장 등 줄줄이 불참
출석기업 임원, 원론적 답변 일관
별다른 소득 없어… ‘맹탕’ 비난도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유통업계는 증인으로 소환된 핵심 CEO들은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줄줄이 불참했다. 출석한 기업 임원들도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결국 ‘맹탕’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달 30일 끝난 이번 국감에는 쿠팡, 신세계, 이마트, 무신사, 다이소 등 주요 유통사 대표들이 증인 명단에 올랐으나 출석은 쿠팡, 홈플러스, 배달의민족 등 일부 기업에 집중됐다.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들이 해외 출장 등 개인 사유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 전 사유서를 제출하며 채택이 철회됐기 때문이다.

조만호 무신사 대표, 쿠팡 김범석 의장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한채양 이마트 대표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 다이소 김기호 대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대표이사는 사유서를 제출하며 증인 신청이 철회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쿠팡이 주요 타깃이 됐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출석해 과도한 입점 수수료 문제와 긴 정산 주기, 쿠팡파트너 납치성 광고 논란에 대해 질의받았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도 정부위원회에 출석해 배달앱 불공정 거래 의혹에 답변했다.

국회에선 홈플러스 사태를 두고 연일 질타가 이어졌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윤종하 부회장과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는 지난달 14일 국회 정부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4일 보건복지위원회, 30일 기후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추가로 지원할 자금을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협상이 아닌 매각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달 13일 기획재정부에 출석한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은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과 과도한 자사주 보유 문제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고 사장은 “계열사 실적 부진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명하며 자사주 소각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14일 산자위에 출석한 이주철 W컨셉 대표는 30%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와 ‘할인 강요’ 의혹에 대해 “패션 특성상 재고 소진을 위해 셀러가 자발적으로 할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같은 날 정부위와 산자위에 출석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배달앱의 불공정 수수료 체계와 독과점 문제에 대해 집중포화를 맞았다. 의원들은 배달비 부담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지적했으나, 김 대표는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21일 복지위에는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가 대표이사로서는 처음 국감장에 섰다. 정 대표는 ‘농약 우통차’ 판매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의원들은 식품 안전 관리 부실 문제와 더불어 백화점 ‘특약매입’ 구조의 불공정성 문제까지 함께 지적했다.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참하고 출석한 증인의 소득 없는 답변이 이어지며 이번 국감도 실질적인 현안 해결 없이 마무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이마트24, 카페 브랜드 ‘성수310’ 선포

컵커피 4종·파우치음료 8종 출시

이마트24가 대한민국 트렌드 중심지 ‘성수’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카페 브랜드 ‘성수310’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편의점 속 카페를 콘셉트로, 얼죽아족트렌드와 합리적 소비 수요에 맞춰 기획됐다.

성수310은 이마트24 본사가 위치한 성수동의 지역명 ‘성수’와 도로명 주소 ‘310’을 결합한 이름이다. 최근 이마트24의 컵커피 매출은 2022년 이후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달 서울대 밥스누 약콩두유빵 시리즈가 인기를 끄는 등 편의점 카페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성수310 라인업으로는 RTD 컵커피 4종(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바닐라라떼, 둘체라떼)과 얼음컵에 따라 마시는 파우치음료 8종(아메리카노블랙, 망고패션블렌디드, 스윗뱅크 등)을 우선 선보인



모델들이 이마트24 카페 브랜드 ‘성수310’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24

다. 향후 RTD 과채음료와 베이커리 상품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마트24는 성수310 론칭을 기념해 RTD 컵커피 4종에 대해 2+1 행사를 운영하고, 제휴카드 및 페이로 결제하면 2+2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11월 한달간 진행한다. /손종욱 기자

GS25, 한 달간 ‘연말 주류 페스타’ 진행

크리스마스 와인 등 1500여종 준비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본격적인 연말 시즌 시작을 맞아 11월 한 달간 ‘2025 연말 주류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홈파티와 셀프 기프트(Self-Gift)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연말 준비가 앞당겨지는 ‘미리 크리스마스’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GS25는 연말 주류를 미리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와인·샴페인·위스키 등 약 1500종의 주류를 합리적인 가격에 준비했다.

먼저, 연말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려 줄 대표 와인으로 ▲모델 크리스마스 로제·리슬링(4만2900원) ▲헤센 크리스마스 로제·리슬링(2만9900원)을 준비했다. 두 와인은 독일 대표 와인 생산지 ‘모델’과 ‘라인헤센’에서 생산된 것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병 모양을 한 것이 특징이다.

매년 11월 세 번째 목요일에 전 세계에서 출시하는 핫와인 ▲2025 보졸레 빌

라주 누보(3만9000원)도 GS25에서 만나볼 수 있다. ‘보졸레누보’는 그해 9월에 수확한 포도를 4~6주간 짧게 숙성한 것으로 베리류의 프루티한 향과 산뜻한 파니시가 조화를 이뤄 어떤 음식과도 페어링하기 좋다.

위스키는 1만 원대의 대용량 가성비 제품부터 GS25 단독 판매 프리미엄 위스키까지 폭넓게 선보인다.

홈파티에서 하이볼로 다 함께 즐기기에 좋은 1L 용량의 가성비 위스키로 ▲컨시에르 위스키(1만4900원) ▲그란츠 트리플우드(1만9900원) 등이 있으며, 프리미엄 라인으로는 블렌디드 스키키 위스키 ▲스코티쉬 리더셰리 캐스크(6만9000원)를 GS25에서 국내 최초로 출시한다.

이밖에도 인기가 높은 위스키 11종을 ‘이달의 위스키’로 선정해 ▲조니워커 블랙(4만7200원) ▲조니워커그린(9만4000원) ▲제임슨(3만4900원) ▲발렌타인 글렌버거 12년(8만9000원) 등을 판매한다. /신원선 기자

CU-쿤달, 편의점용 헤어·바디상품 출시

편의점 CU가 프리미엄 퍼스널 케어 브랜드 ‘쿤달(KUNDAL)’과 손잡고 업계 최초로 편의점용 헤어·바디상품 3종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업 상품은 쿤달의 대표 라인인 ‘히니 앤드 마카다미아’ 샴푸, 바디워시, 트리트먼트 3종이다. 편의점 소비자 수요에 맞춰 200ml 소용량으로 선보이며, 뉴질랜드산 마누카 꿀과 호주산 마카다미아씨 추출물을 함유했다.

CU는 이번 협업을 통해 기존 식품류에 집중됐던 차별화 상품을 비식품카테고리로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지도 높은 프리미엄 상품을 소용량으로 출시해, 가격 부담 없이 시범 구매를 원하는 고객층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BGF리테일 최민지 생활용품팀 상품



CU가 쿤달과 협업한 헤어 바디 상품을 선보인다. /CU

기획자는 “구매 부담은 낮추고 고객 접점을 넓히기 위해 최신 인기 생활용품을 소용량, 가성비 버전으로 재해석 했다”며 “이번 쿤달과의 협업은 CU가 앞으로 비식품류 전반에서 높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춘 차별화 상품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롯데백화점, ‘라인페이 대만’ 도입

6일 서비스… 관광객 편의성 개선
“글로벌 고객경험 선도 백화점 도약”

롯데백화점이 백화점 업계 최초로 ‘라인페이 대만’ 간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며 글로벌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10월 31일 ‘라인페이 대만’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달 6일부터 전점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라인페이 대만’은 1310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대만 1위 간편결제 서비스다. 이번 도입으로 대만 관광객들은 환전 없이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방식으로 롯데백화점 전점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롯데백화점은 업계 최초 오픈을 기념해 내년 1월 31일까지 ‘라인페이 대만’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라인페이 대만’ 오픈 세레머니에서 롯데백화점 박상우 영업전략부부장(왼쪽)과 라인페이 대만 오동빈 글로벌 사업 총괄 겸 라인페이플러스 CPO(오른쪽)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이용 고객을 위한 대규모 혜택도 마련했다. 20만원 또는 40만원 이상 구매 시

10%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하며,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30% 상당을 라인포인트로 환급해주는 페이백 혜택도 추가로 제공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만은 방한 관광객 순위 3위를 차지할 만큼 한국 관광 수요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제휴를 통해 대만 관광객 수요를 집중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백화점 박상우 영업전략부부장은 “이번 ‘라인페이 대만’ 도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결제 트렌드에 발맞춰 쇼핑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결제 플랫폼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글로벌 고객 경험을 선도하는 백화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손종욱 기자

쿠팡, ‘스위트샵’ 기획전… “마음 전하세요”

간식·선물 3만여개 한데 모아

쿠팡이 수능·빼빼로데이 등 다가오는 기념일들을 맞아 수험생과 연인을 위한 간식과 선물 3만여개를 한데 모은 ‘스위트샵’ 기획전을 오는 13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식품 생활용품 가전디지털 로켓프레시 홈인테리어 뷰티 주방

용품 패션 반려용품 출산유아 문구&사무용품 자동차용품 등 총 12개 카테고리가 참여한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 응원 선물부터, 11월 11일 기념일 간식과 연인 선물, 반려동물과 아이를 위한 간식까지 쇼핑 편의를 높인 다양한 테마관을 통해 선보인다.

주요 테마관은 ▲매일 대표 상품 10개를 추천하는 ‘오늘의 추천템’ ▲초콜

릿·건강식품·도시락 등으로 구성된 ‘수능선물’ ▲연인을 위한 ‘11.11 Day 선물’ ▲아이·반려동물 간식을 모은 ‘우리가족 간식’ 등이다.

또한 3일부터는 13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브랜드데이’도 운영한다. 브리즈, 뉴트리원, 이니스프리, 에뛰드, 에스쁘아, 빼빼로, 뉴케어, 농심켈로그, 오리온, 코코도르, 아모레퍼시픽, 세노비스, 페레로로셰, 엠앤엠즈 등 다양한 브랜드가 참여해 일자별로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APEC 정상회의 빛낸 K-뷰티… 전 세계에 우수·혁신성 알려

LG생활건강 ‘더후’, 국민세트 협찬 대표품목 환유고·환유 동안고 선배 경주서 영감 얻은 ‘천년의 빛’ 선물함

CJ 올리브영 ‘최고의 종합 K뷰티’ 17종 엄선… 기념품 8000세트 협찬

에이피알 ‘부스터 프로’, 뷰티테크 알려 아모레퍼시픽, K-뷰티 혁신성과 공유

K뷰티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2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이번 행사에 참석한 세계 각국 정상들의 배우자를 위한 선물로 궁중 피부 과학 럭셔리 코스메틱 브랜드 ‘더후’ 국민 세트를 공식 협찬했다. 특히 브랜드 대표 품목인 향산화 크림 ‘환유고’와 ‘환유 동안고’를 선보였다.

이와 함께 선물함은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제1호 칠장 수곡(守谷) 손대현 장인이 손수 제작한 ‘국화당초문 나전칠기함’으로 마련해 품격을 높였다.

부대행사로 진행된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참석한 주요 기업 CEO를 위한 선물로도 더후 환유고 54개와 천년 고도 경주에서 영감을 얻은 ‘천년



국가 정상 배우자 전용 ‘더후 환유고X나전칠기’.

/LG생활건강



2025 APEC 회원 대상 선물 ‘더 베스트 K뷰티 셀렉션’

/CJ올리브영

의 빛’ 선물함을 전달했다. 이 선물함도 특별히 손대현 장인이 만든 또 다른 모습의 나전칠기함이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더후가 오랜 기간 축적한 독보적인 스킨케어 기술력과 국산 명품 브랜드로서의 진가를 세계 최고의 VIP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APEC과 같은 국가 행사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차별적 고객가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K뷰티 전용 유통 기업인 CJ올리브영은 2025 APEC 각 회원 정상 공식 선물로 중소·인디부터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17종을 엄선한 ‘최고의 종합 K뷰티’를

기획했다.

올리브영은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다양한 브랜드에 합입은 K뷰티 경쟁력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포장에는 신라 금관 디자인, 전통 매듭 등을 적용하고 원목 소재와 자개를 활용하며 한국 전통미의 정수를 표현했다. 올리브영은 정상 선물 외에 정부 대표단, 고위 관리 등을 위한 K뷰티 기념품 약 8000세트도 협찬하며 힘을 보탰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이번 2025년 APEC 회원 정상 선물 채택은 올리브영과 중소 브랜드가 함께 이뤄낸 K뷰티 산업 생태계가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은 상

징적인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내 브랜드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K뷰티 산업의 기반을 함께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은 ‘K뷰티테크’ 위상을 공고히 높였다. 특히 뷰티 디바이스 ‘부스터 프로’ 등을 공식 협찬했다.

에이피알이 전개하고 있는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에이지알은 부스터 프로, 부스터 진동 클렌저, 하이 포커스 샷 플러스 등 신제품을 지속 내놓으며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해 왔다. 9월 기준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500만 대에 달하는 가운데, 해외 매출 비중은 이미 절반을 넘어

섰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체 기술력과 제품 안전성 검증으로 국내외 시장에 적극 도전해 왔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 받는 K뷰티’에 적극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80여 년 전통의 국내 대표 화장품 브랜드 아모레퍼시픽은 APEC 정상 회의 기간 중 한국 화장품 산업의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K뷰티의 혁신 성과를 공유했다.

APEC CEO 서밋 전용 프로그램으로 K뷰티 파빌리온을 운영했다.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설화수’부터 컨템포러리 서울 뷰티 브랜드 ‘헤라’, 글로벌 핵심 브랜드 ‘라네즈’, 인공지능 뷰티 디바이스 전문 브랜드 ‘메이크온’, 고급 차(茶) 브랜드 ‘오설록’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꾸몄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이 국내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이끌며 집중 연구개발 성과를 결집한 K뷰티 우수성과 혁신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뷰티 솔루션을 선보이며 K뷰티의 글로벌 확산에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SK바이오팜, 의료·헬스케어 AI 경쟁력 강화

과기정통부 주관 프로젝트 참여
신약·디지털트윈 모델 개발 담당

SK바이오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인공지능(AI)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정부 주관 사업으로 의료, 법률, 제조 등 국가 핵심 산업별 특화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한다. SK바이오팜은 의료 인공지능 기업 루닛이 주관하는 의료·헬스케어 컨소시엄의 수행 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루닛 컨소시엄은 의과학 연구개발 전 주기에 걸친 데이터(분자·단백질·영상 등)를 통합해 임상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K바이오팜은 인공

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과 디지털 트윈(가상 환자 기반 임상시험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을 담당한다.

특히 중추신경계(CNS) 질환 중심으로 화합물·단백질 데이터와 임상·실사용 데이터를 결합해 신약개발 과정을 고도화하고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설계까지 아우르는 연구 체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SK바이오팜은 인공지능/디지털 전환(AI/DT)센터를 통해 제약 기업으로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AI/DT센터는 최고경영책임자 직속 조직으로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도구, 인공지능 업무지원 시스템 도입, 해외 관계사 정보화 연결 등을 총괄하고 있다.

SK바이오팜은 우선 후보물질 발굴부터 품목허가 획득, 글로벌 상업화까지

신약개발 전체 과정을 독자 수행한 국내 유일의 제약사다. 이와 함께 신약 발굴·개발·치료 전체 과정을 인공지능을 이용해 연결하고, 미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치료 경험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북미 지역에서 조인트벤처 ‘멘티스 케어’를 설립하는 등 생체신호 기반 인공지능 모델의 상용화와 글로벌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의료·헬스케어 분야에서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에 선정돼 매우 뜻깊다”며 “AI/DT센터를 중심으로 루닛 등 국내 AI 선도기관들과 협력해 AI 기반 신약개발과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술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동국제약, 먹는 치질약 ‘치센정’ 선봬

디오스민 함량 2배 늘려

동국제약은 중등도 이상의 치질 증상을 위한 고효량 디오스민 제제인 먹는 치질약 ‘치센정’ (사진)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치센정은 일반의약품으로, 기존 치센 캡슐 대비 유효성분인 디오스민 함량을 2배 함유한다.

디오스민은 유럽에서 개발된 식물성 플라보노이드 계열 성분으로, 혈관 탄력 개선, 모세혈관 투과성 정상화, 항염 및 항산화 작용을 통해 치질로 인한 통증, 부종, 출혈, 가려움증 등을 개선해 준다.

특히 치질 증상이 심한 경우, 치질이 자주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 신속한 증상 개선이 필요한 경우, 캡슐 복용이 어



려운 경우, 간편한 치질 관리를 선호하는 경우 등 다양한 증상에서 복용 가능하다. 1정(600mg)을 하루 2~3회(총 1200~1800mg) 식사와 함께 복용하면 된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치센정은 중등도 이상의 치질 증상을 보다 간편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환자들을 위한 고효량 제품으로 처방됐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삼양바이오팜 인적분할 후 공식출범

삼양바이오팜은 1일을 분할기일로 삼양그룹의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에서 인적분할해 그룹의 의약바이오사업을 전담하는 독립법인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분할 방식은 삼양홀딩스 주주가 기존 법인과 신설법인의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해 나눠 갖는 인적분할 형태로 이뤄졌으며, 오는 24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다. 대표이사에는 삼양홀딩스 공동대표로서의 의약바이오사업을 이끌어온 김경진 사장이 선임됐다.

/이세경 기자 seilee@

애경산업 ‘루나’, ‘베베 더 오리’ 한정판

커버력 강조… 컨실러 등 14종 구성

애경산업은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루나에서 글로벌 인기 캐릭터 ‘베베 더 오리’와 협업한 한정판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베베 더 오리는 귀여운 외모와 재치 있는 입담으로 MZ세대와 적극 소통하고 있는 캐릭터다.

이번 협업 주제는 ‘이 구역의 커버짱’으로 루나 제품의 장점인 커버력을 강조한다. 힘든 직장 생활 속에서도 커버력을 잃지 않는 현대인에 적합한 ‘롱래스팅 팁 컨실러’ 5종, 언제 어디서든 잡티



‘루나X베베 더 오리’ 한정판.

/애경산업

없는 피부를 유지해 주는 ‘컨실 블렌더 팔레트’ 2종, 강하면서도 감성적인 ‘하이 퍼트 필터 쿠션’ 4종, 다양한 디자인을 담은 ‘프로 포도 피니셔’ 3종 등 총 14종으로 구성됐다. /이청하 기자

한촌설령탕, 국탕류 간편식 최대 60% 할인

‘뽕-다세일 기획전’ 첫 참여
인기 가정 간편식 메뉴 구성

한촌설령탕이 네이버 ‘뽕-다세일 기획전’에 첫 참여해 오는 11일까지 국탕류 시그니처 간편식 라인업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고물가 추세가 지속되면서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즐기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가격 부담은 줄이되, 맛과 영양, 품질을 모두 챙기는 ‘합리적 프리미엄 간편식(HMR)’이 새로운 식사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의 ‘2024년 가공식품 소비자태도 조사’에 의하면 최근 1

년간 가정간편식 구입 경험이었다고 답한 가구는 77.9%로 전년 67.3%에 비해 10.6%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저변 식사용으로 간편식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69.1%에 달하는 등, 한 끼의 완성도를 중시하는 소비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번 행사는 프리미엄 HMR 트렌드를 반영해 지난 추석 네이버 프로모션 당시 30~40대 여성 소비자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더블랙 프리미엄 진 고기설령탕 ▲한우사골곰탕을 중심으로, ▲더블랙 프리미엄 명품 소갈비탕 ▲더블랙 프리미엄 진 소양내장탕 ▲수만두 등 인기 가정 간편식 메뉴들로 라인업을 구성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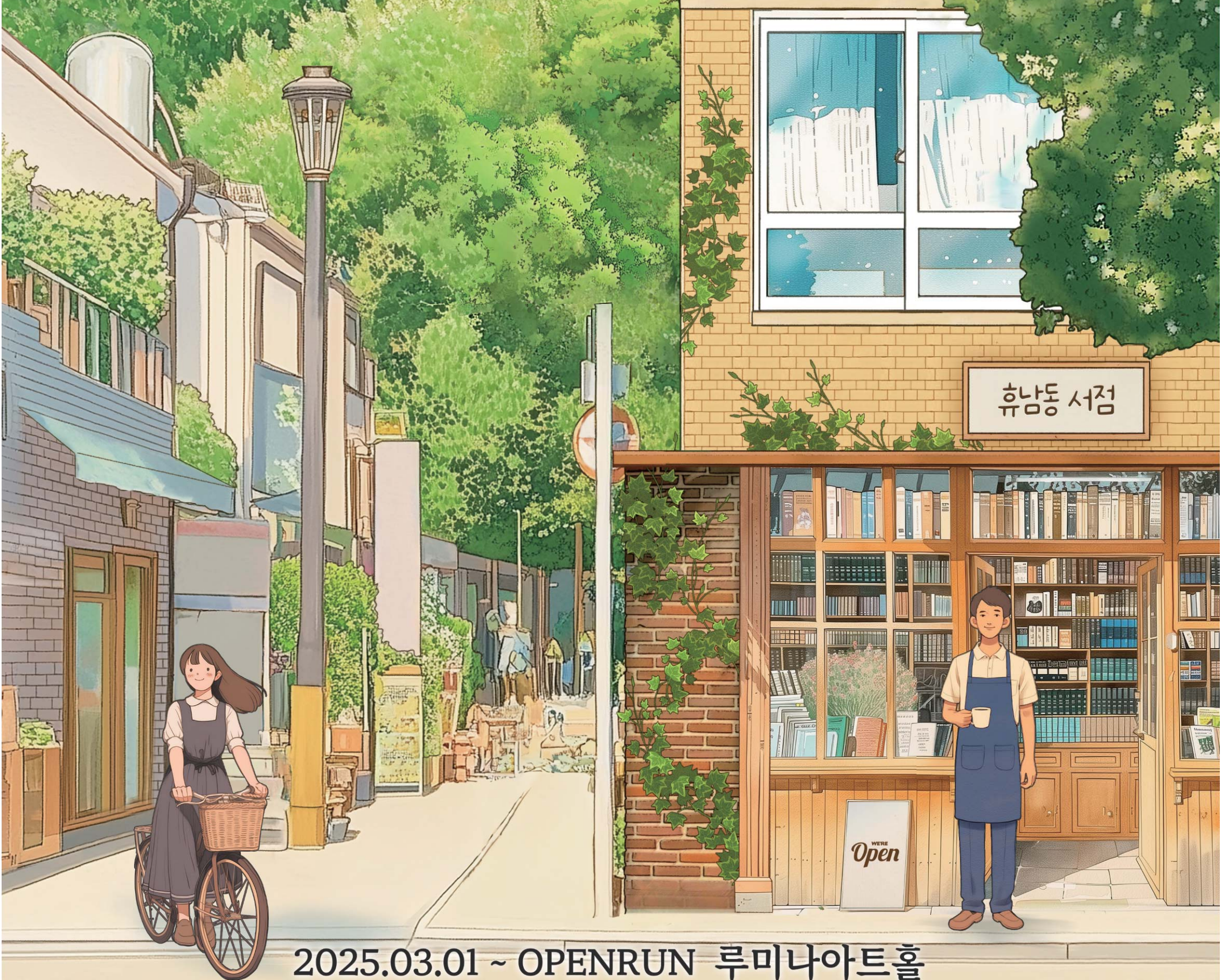
2025
JIWOO
Production
Presents

Musical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Welcome to the Hyunam-Dong Bookshop

“오답투성이 인생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2025.03.01 ~ OPENRUN 루미나아트홀

원작 황보름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클레이하우스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연출 박예슬 | 작곡·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손정은 | 음향디자인 안형록 | 의상디자인 백은경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문혜인 | 무대감독 박민서 | 컴퍼니매니저 소우현

출연 서지아 김재은 표혜미 서은교 | 황수빈 최우성 석우성 이규진 | 한재우 김도경 공민규 김록현 | 박나연 현지수 오미준 김정은 | 임영식 이선 박형석 최윤재

주최·제작 극단지우 협찬 yes24 사파게절 티켓문의 NOL ticket 공연문의 02.332.4902



유한양행, 임직원들과 '런치타임 블로그' 진행

유한양행은 지난 10월 20~21일 본사, 연구소, 공장 등 3개 사업장에서 67명의 임직원들이 '런치타임 블로그'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유한양행이 지난 2022년부터 전개하고 있는 블로그 캠페인의 일환이며 이 밖에 '버들생명 블로그'는 임직원과 가족이 집 근처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그해의 환경 목표를 달성해 소아암 환자 치료비를 지원한다.

/유한양행



현대백화점그룹-KB금융그룹, 유통·금융 '맞손'

현대백화점그룹은 KB금융그룹과 '고객 경험 혁신 및 금융·유통 시너지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에서 장호진 현대지에프홀딩스 사장(오른쪽),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KB국민은행 박병곤 영업그룹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현대백화점



iMBank, ESG경영 확산·사회적기업 지원 나서

iMBank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ESG경영 확산 및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강정훈 iMBank 부행장(왼쪽)과 정승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MBank



이천 시몬스 테라스, 트리·일루미네이션 선보

시몬스는 연말 시즌을 맞아 이천 시몬스 테라스에서 특별한 크리스마스 트리 및 일루미네이션을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시몬스가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문화 나눔 행사로, 해를 거듭할수록 입소문을 타고 전국적인 크리스마스 맛집으로 떠오르면서 이천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시몬스



KB손해보험, 'KB 희망의 집 58호' 완공

KB손해보험은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공동생활가정인 마야의 집을 새롭게 단장한 'KB 희망의 집 58호'를 완공했다고 2일 밝혔다. 이상규 KB손해보험 경인강원본부장(맨 오른쪽)과 고성원 밀알복지재단 모금사업본부장, 남순희 마야의 집 시설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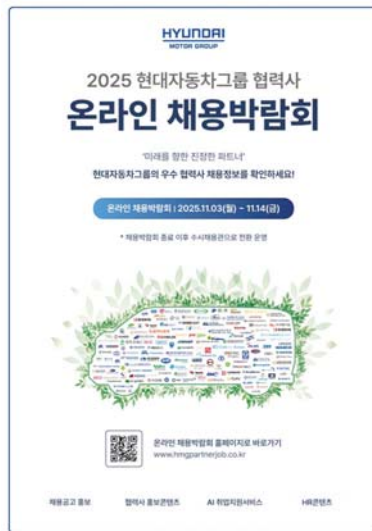
/KB손해보험

현대차그룹, 협력사와 '온라인 채용박람회' 열어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진행 예정 채용상담부터 실제 채용까지 연결 부품·정비 등 총 600여개사 참여 취업포털 '사람인'과 협업해 홍보

현대자동차그룹이 협력사와 함께 '2025현대자동차그룹 협력사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현대차그룹이 채용 상담 등을 통해 실제 채용까지 연결되도록 행사 기획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재정적인 지원 등을 전담하는 국내 대표 동반성장 프로그램이다.

2012년 서울·광주·대구에서 시작해 울산·창원으로 확대했으며 2020년



'2025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사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최.

삼성전기,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받아
협력사 경영안정 도와

삼성전기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동반성장위원회의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약이행평가를 합산해 산출된다. 기업은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삼성전기는 '상생협력데이'와 협력사 현장 소통을 비롯해 약 8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 운용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통해 협력사의 경영 안정을 도왔다. 또 개발·기술·품질 분야 전문가를 협력사에 직접 파견해 맞춤형 기술 교육과 현장 개선을 지원하며 기술 경쟁력 제고에도 힘써왔다.

삼성전기는 지난 4월 동반성장위원회 및 협력사들과 '협력기업 생태계 강화 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후로도 상생펀드 확대, 생산성·품질 향상, 안전환경 개선 등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희준 기자 nauta@

풀무원푸드앤컬처, 키즈 프로모션 진행

인천공항 스카이하브라운지서
아이 동반 가족단위 여행객 대상
'아임리얼 100 고농축' 랜덤 증정

풀무원의 푸드서비스 전문기업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인천국제공항 내 '스카이하브라운지' 5개 매장에서 어린이 동반 고객을 대상으로 실온 과채주스 풀무원 '아임리얼 100 고농축'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블루베리, 토마토, 배도라지 3종 중 한 가지를 랜덤으로 제공하며,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건강하고 즐거운 라운지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제2터미널, 탑승동 내 스카이하브라운지 5개 매장에서 올해 연말까지 진행된다.

'아임리얼 100 고농축'은 엄선한 과일과 채소를 고농축해 원물 고유의 진한 맛을 한 팩에 담아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다.

풀무원푸드앤컬처는 2023년 12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동편 매장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리뉴얼하며, 제1터미널 2개소, 제2터미널 2개소, 탑승동 1개소 등 총 5개 라운지의 운영 환경과 식품 서비스를 개선했다. 최근에는 농심 '배홍동'과 협업한



아임리얼100 고농축.

/풀무원

증정 이벤트 등 다양한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고객들에게 새로운 여행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풀무원푸드앤컬처 이동훈 대표는 "이번 프로모션은 가족 단위 여행객이 증가하는 트렌드에 맞춰, 아이와 함께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특별한 휴식과 식문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항 라운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풀무원푸드앤컬처는 1995년 위탁급식 사업을 시작으로 컨세션, 고속도로 휴게소, 외식 브랜드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바른 먹거리로 사람과 지구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기업' 미션 아래 지속 가능한 식생활과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부터 코로나19 영향과 수시채용 위주의 채용시장 변화에 따라 온라인 중심 박람회로 변경해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이번 채용박람회는 온라인 방식으로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종료 이후 해당 홈페이지는 수시채용관으로 변경, 협력사 인력공백 최소를 위해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현대차·기아의 부품 협력사와 블루핸드·오토큐 같은 정비 협력사, 사내 스타트업, 현대모비스 협력사 등 총 600여개의 협력사가 참여한다.

또 취업포털 '사람인'과 협업해 사

람인 공식 홈페이지에 '현대차그룹 협력사 채용관'을 만들고 홍보 효과를 높인다. 구직자와 협력사 인사담당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채용시스템도 제공할 계획이다. 협력사에는 사람이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인 '인재 풀 검색'이나 '인·적성검사' 등을 채용박람회 기간 무제한 무상 제공한다.

채용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온라인 채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협력사별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관심 있는 기업에 지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전자, 美서 '불곰 보호 캠페인' 전개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 통해
멸종위기종 보호 캠페인 영상 공개

LG전자는 최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LG와 함께하는 멸종위기종 보호 캠페인'의 여덟 번째 영상 '불곰' 편을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기후변화로 서식지를 잃어가는 동물들의 생생한 모습을 3D 영상으로 구현해 생물 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구 온난화와 탄소 배출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글로벌 ESG 활동이다.

이번에 주인공으로 등장한 '불곰'은 영국 인기 캐릭터 '패딩턴'의 모티브로 잘 알려진 동물로, 기후 변화와 무분별한 사냥, 개발로 인한 서식지 감소 등으로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다.

LG전자는 앞서 올해 2월, 4월, 7월 각각 모나크 나비·서인도제도 매너티·피그미 올빼미 편을 공개했으며, 지난해에는 눈표범·흰머리수리·바다사자·붉은늑대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



LG전자가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공개한 '불곰' 주제 동물 보호 캠페인 영상.

/LG전자

을 주제로 한 영상을 상영했다.

또 올해부터는 미국 NBC가 제작하는 자연 다큐멘터리 시리즈 '더 아메리카스'의 공식 파트너로 참여해, 멸종위기종 보호 캠페인을 글로벌 차원에서 확장하고 있다.

LG전자는 '모두의 더 나은 삶'이라는 ESG 비전 아래 뉴욕·런던 등 주요 도시에 설치된 자사 전광판을 활용해 국제기구 및 NGO의 공익 영상을 상영하는 'LG 희망스크린' 프로젝트를 운영해 오고 있다.

/정희준 기자

한국엔컴퍼니그룹, 건축투어 프로그램

본사 테크노플렉스 개방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지난 1일 경기도 판교에 있는 본사 테크노플렉스에서 '오픈하우스' 건축 투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들에게 서울과 인근에 있는 근현대 건축물을 개방하고, 경험할 기회를 주는 도시건축 축제 '오픈하우스 서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해당 행사에 참여했다.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 △규제혁신총괄과장 우향제 △뉴미디어총괄행정관 이순아 △성과관리총괄과장 손호진 △갈등관리팀장 주은성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지원단 기획총괄과장 김완수

부음

▲이수희(향년 91세)씨 별세, 최광옥·최미나·최광지(한국여자축구연맹 부회장)씨 모친상, 서진아·류미선씨 시모상 = 2일 오전 5시40분, 서울적십자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4일 오전 9시30분, 장지 동화경묘공원. 02-2002-8479

세계적 베스트셀러 원작

꿀벌 마야의 모험



디아나아트홀
2025. 09. 13 - 오픈런



디아나아트홀

프로듀서 황기현 | 작 김영주 | 연출 윤다현 | 음악 김은지 | 안무 윤이나 | 제작PD 문혜인

주최/주관 (주)디아나수플 : DIANA FORGET 제작 (주)BROTHERHOOD SHOW 기획 극단 지우 이제이컴퍼니

황진희 이영록 정현승 황재훈 김도연 유새힘 홍윤화 곽지연 조아름 윤채희 이영현 이유진 이유미 김민승

기간 지나도 회생채권 신고, 부적법 아니다



박 규 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회생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채권자는 법원이 부여하는 신고기간 안에 자신이 가진 채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되지 않아 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권리는 회생계획이 인가됨과 동시에 그대로 실권된다. 다수의 권리를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확정해야 하는 회생절차의 특성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회생절차의 특성 때문에 회생채권자들은 회생절차 내에서 주어지는 신고 기간이나 권리 행사의 시점을 반드시 잘 챙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가진 채권을 회생절차에서 회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신고기간이 경과된 후 이뤄진 회생채권 신고는 모두 부적법 한 것일까? 다 그런 것은 아니다. 회생채권자가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했다면 회생채권 신고의 효력을 인정한다. 채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해당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해, 채권자가 회생절

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한 때와 같은 경우다.

신고기간이 경과된 후에 발생한 채권은 어떨까? 채무자회생법 제153조 제1항에서는 신고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생긴 회생채권은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조문에 의하면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회생계획안의 서면결의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면 채권신고를 진행할 수 없다.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회생, 파산 진행 여부를 면밀히 신경 쓸 필요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미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종료되고 회생계획안의 서면결의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 구제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대법원은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을 살펴 회생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회생채권 신고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본래 채무자회생법이 신고기간을 둔 취지는 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조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회생절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채권을 실권시키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A 건설사의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이전에 진행된 공사에서 회생계획안이 확정된 이후에서야 하자가 발생했다면, 채권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나 구상금채권의 발생을 미리 예견해 채권을 신고하고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회생절차에서 선임된 채무자의 관리인이 채권자와의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했는데, 관리인의 계약해제 통지 등이 적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신고 지연의 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이미 회생법원이 위와 같은 경우에 놓인 채권자의 신고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까지 마친 경우에는 채무자가 신고의 적법 여부를 다루는 이익을 제기할 수 없다고도 본다.

이처럼 신고기간을 경과했다고 해서 모든 채권이 무조건 실권되는 것은 아니다. 경과하게 된 사유에 따라 충분히 법원에 채권신고의 효력을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역시 채권을 신고할 수 없었던 사유가 종료된 때, 즉 회생절차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가 이뤄져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법무법인 바른

은행 이익의 착시



기지 수첩
나 유 리
(금융부)

4대 시중은행이 올해 3분기까지 1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뒀다. 금리 인하 국면에서도 대출자산이 꾸준히 증가하며 이자이익이 실적을 견인했다.

표면상으론 '사상 최대 실적'이지만, 그 이면엔 불길한 신호가 감지된다. 연체율이 조용히 오르고 있는 것이다.

4대 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0.2%대에서 올 3분기 0.3%대로 상승했다. 국민은행은 0.28%→0.34%, 우리은행은 0.30%→0.36%로 뛰었다. 신한·하나은행도 소폭 상승했다.

문제는 가계대출 규제 속에 은행들이 기업대출로 방향을 틀면서 연체 증가의 중

심이 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36%로 총대출 연체율보다 0.03%포인트 높고, 신한·하나·우리은행도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경기 회복이 더디면서 기업들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주택담보대출 등은 담보가 있어 돈을 떼일 우려가 거의 없다. 하지만 기업은 다르다. 경제 상황에 따라 하루 아침에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할 수 있다.

이런 흐름이 '이익의 착시'를 낳을 수 있다. 경기보다 앞선 대출 확장은 단기적으로 실적을 끌어 올리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실 리스크로 되돌아온다.

은행의 이익이 늘수록 금융의 본질적 역할이 무엇인지 되묻게 된다. '생산적 금융'이란 명분 아래 기업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단기 실적을 위한 선택이 되어선 안

된다. 자금이 흘러가야 할 곳은 여전히 회복의 숨을 고르고 있는 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지역경제다. 숫자로는 잡히지 않는 '지속 가능한 금융의 품질'이 지금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

금융권이 진짜로 보여줘야 할 성과는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 대비하는 능력이다.

이익의 곡선 뒤에서 조용히 오르는 연체율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경기와 금융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다.

은행의 진짜 실적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제는 '이익'보다 '내실'이, '확장'보다 '균형'이 중요할 때다.

/yul11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11월 3일 (음 9월 14일)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사촌과의 경쟁은 후회만 남게 되니 양보를 하자. 48년생 주변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60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일이 성취된다. 72년생 늘 흐르는 물은 썩지 않으니. 84년생 막연한 희망보다는 작더라도 실천을 해야.

 소

37년생 게으름 피우지 말고 일해야. 49년생 신세진 사람이 빛 갚으러 온다. 61년생 운이 상승하는 날이니 미뤄둔 일을 처리. 73년생 도무지 근거 없는 말들만 무성하다. 85년생 바쁘다고 서두르면 결과 없이 진행만 더디게 된다.

 토끼

38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감사. 50년생 사랑 타령은 시간 낭비며 우울의 결과로 온다. 62년생 신용으로 신뢰를 얻는 날. 74년생 뜻이 있으면 결국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86년생 불평보다는 부족함을 채우는 실력을 공부.

 토끼

39년생 오후에 교통사고 유의. 51년생 이직계획은 보류해야. 63년생 경력을 믿고 고만해라 부처님 75년생 집 안 청소를 주변 환기를 해보자. 손바닥처럼 알은 수준이다. 87년생 세월이 지나고 보면 부모님 은혜가 태산같이 높을 것이다.

 양

40년생 바쁜 시간은 피해서 일을 보라. 52년생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먼저 공과 사를 구별해야. 64년생 이성 문제로 시달릴. 76년생 하늘이 알아주니 남들도 알아 복을 받는다. 88년생 평소 겸손함으로 주변으로부터 신망을 얻는다.

 뱀

41년생 중이 젊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젊이 옮겨갈 수는 없다. 53년생 정신일도 하 사불성이면 못할 것이 없다. 65년생 일이 바빠서 서두르다가 다친다. 77년생 위험한 일을 미리 알아 대비하도록. 89년생 산행에서 무리하지 않도록.

 말

42년생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해롭는데. 54년생 동료 간에 협조가 필요하니 왕따로 따돌리지 마라. 66년생 소자본 창업은 좀 더 꼼꼼하게. 78년생 물량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 뒷각정이 없다. 90년생 잔소리로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양

43년생 이익을 챙기는 것이 좋으나 너무 계산하지 않도록. 55년생 태산을 넘으면 평지가 나오니 기다려라. 67년생 선부터 이직은 글썽. 79년생 자연에서 바람과 밝은 달을 대하여 즐겁다. 91년생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여 돈 자랑 말라.

 원숭이

44년생 과다한 투자는 삼가야. 56년생 이제 말은 바 일을 열심히 하자. 68년생 기획실로 발령되어서 외국어를 공부해야 하는 상황. 80년생 집을 설계하는데 마음이 맞아 고마운 일. 92년생 남과 비교되는 일은 사람 사는 데 항상 있는 일.

 닭

45년생 부부끼리 잠자는 모습도 싫어진다. 57년생 술자리가 길어지지 않도록. 69년생 합리적 비판에 예민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81년생 일반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심정이라는데. 93년생 이직은 객관적으로 실천해야만.

 돼지

46년생 힘찬 변화가 있으니 외모에도 조금 신경 쓰도록. 58년생 한 걸음만 가면 행운이 온다. 70년생 기술 쪽에 재능이 있다. 82년생 부모님께서 노년생들의 원앙지계(怨鴛之契)이다. 94년생 자신이 근면하도록 해야 세상을 타히지 않을 것.

 돼지

47년생 남녀노소 노력에 따라 발전을 가져온다. 59년생 도박에 돈과 노력을 쏟는 건 무모하다. 71년생 운이 있으니 주시보다는 청약을. 83년생 주변에서 권하는 것들이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는 것들을. 95년생 슬픔도 고통도 자기 성장이다.

김상회의四季

이룸, 동지 기도

동지는 태양의 힘이 가장 약해지는 날이면서 동시에 다시 길어지는 낮을 통해 새 출발을 알리는 시점이다. 예부터 동지를 작은 설이라 부르며 중요하게 여겼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행해진 것이 동지 기도다. 조상들은 동지가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희망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다. 지나온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해의 서원을 세우는 의미 깊은 의식으로 특히 불교 사찰을 중심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며, 많은 사람에게 새해에 걸어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 가정에서는 팔죽을 쑤어 잡귀를 물리치고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팔의 붉은색은 사악한 기운을 쫓아내므로 문설주나 마당에 팔죽을 뿌리며 동지 기도를 겸하곤 했다.

불교 사찰에서는 동지 무렵 특별한 법회를 열고 대중이 함께 기도를 올렸다. 대웅전 앞에서 향을 피우고, 부처님께 한 해의 무사안녕과 새해의 평안을 비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으로 새로운 복을 맞이하기 위함이다. 동지를 기점으로 해가 길어지며 양의 기운이 힘을 얻으므로 이때 기도를 올리면 신령의 가호가 크다고 믿었다. 또한 동지는 새해를 준비하는 전환점으로 인식되어서 지난해의 액운을 털고 새로운 소망을 품는 계기로 삼았다. 기도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서원을 세우는 것이다. 서원이란 부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맹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해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를 깊이 생각하게 된다. 시험에 합격하도록 힘쓰겠다거나 새로운 사업을 꼭 성공시키겠다는 서원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실천과 다짐을 통해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불교에서는 동지 기도를 통해 업장을 소멸하고 선업을 쌓으니 동지는 단순한 절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메트로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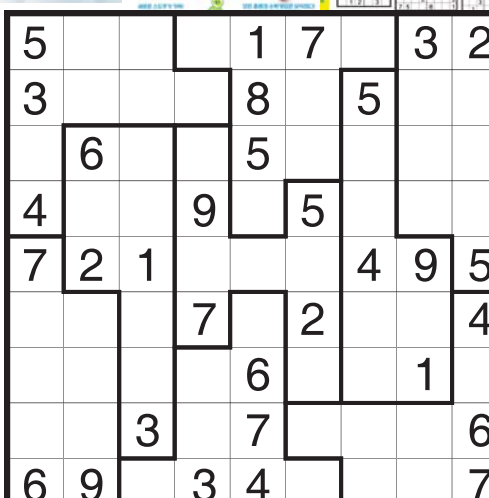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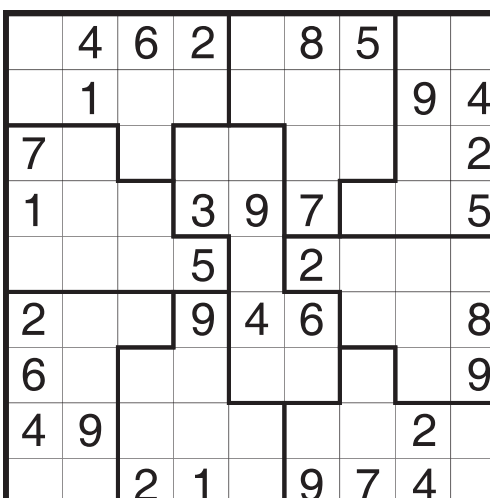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8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8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 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 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7	6	8	1	2	9	8
8	2	1	9	8	9	6	7
6	7	8	1	2	9	8	9
8	9	8	9	7	6	1	2
1	9	7	2	1	9	6	8
9	8	9	6	8	7	2	1
7	1	6	7	9	8	9	7
7	6	2	9	7	8	1	9
7	8	9	8	1	2	9	7

7	9	8	1	7	8	2	9
9	2	1	6	7	9	8	7
8	1	2	7	9	8	6	9
9	8	9	2	6	7	9	8
7	6	7	8	9	1	2	7
1	9	8	9	2	6	8	7
8	7	2	8	9	1	7	9
6	7	9	8	7	2	1	8
2	8	6	7	1	7	9	8

서울교육청 내년 예산 11.5조 편성 AI 역량 키우고, 교육격차 줄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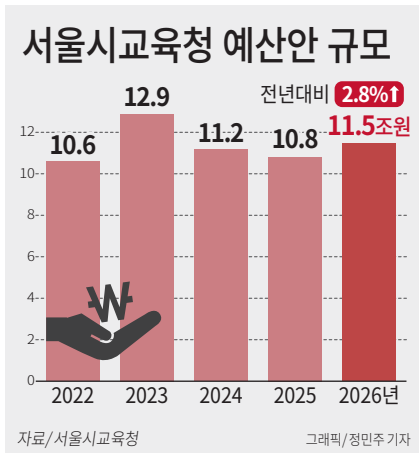
2026년도 예산 작년대비 2.8%▲
학력격차 해소 위한 맞춤교육 강화
AI 인프라 구축, 학교 환경 개선도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교육 방향을 ▲AI 기반 미래역량 강화 ▲맞춤형 학습 지원 ▲학교 안전 및 교권 보호에 두고,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도 현장 중심 투자를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6년도 예산안을 총 11조4773억원 규모로 편성해 지난 달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10조8027억원)보다 6746억원(6.2%) 증가한 규모로, 2024년 예산(11조1605억원)과 비교해도 3168억원(2.8%) 늘어난 수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제입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재정 안정화기금과 교육 시설 환경개선기금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중앙정부 보통교부금이 약 4000억원 줄고, 공무원 인건비(3.5% 인상) 부담이 3500억원 증가하면서 불가피하게 기금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AI 교육 등 미래역량 강화, 학생·교원 마음건강 증진, 다양한 공



교육 지원,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우선, 맞춤형 교육 강화로 학력격차를 해소한다. ‘한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을 목표로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159억7000만원, 심층 진단 및 치유 연계 프로그램에 50억9000만원을 투입한다. 또한 학습·정서·진로 등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 구축에는 112억7000만원을 배정했다.

AI·미래역량 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강화(15억3000만원)와 교원 학습공동체 활성화(64억6000만원)를 지원한다. AI 교육 인프라 구축에도 힘쓴다. AI 교육센터 설립(4억3000만원), AI 중점학교 운영(58억2000만원), 디지털 인프라 개선

(221억2000만원), 전자질판 보급(27억8000만원) 등에 예산이 편성됐다.

정근식 교육감이 최우선 과제로 꼽는 학생·교원 마음건강 증진에도 힘을 쏟는다.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2억9000만원), Wee센터 및 We클래스 상담활동(27억7000만원), 자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 지원(15억9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교권침해 교원 지원센터(20억6000만원), 교권보호위원회 및 전담 변호사 운영(22억2000만원), 교실안심 SEM 및 교육활동 보호지원단 운영(11억3000만원) 등 교원 심리 회복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학교 내 CCTV 사각지대 해소(23억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44억7000만원) 등에 예산이 배정됐다.

노후학교 개축 및 확충(1687억원), 냉난방·화장실 등 노후시설 개선(2999억원), 내진보강 및 안전점검(1138억원) 등 시설 개선도 대폭 확대된다.

정근식 교육감은 “재정 여건이 악화 된 상황에서도 교육격차 해소, AI 교육 강화, 마음건강 증진, 공교육 내실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강성영 한신대 총장 “한신다움 정신 계승”

한신대, 미래비전 VISION 2040 제시
“100주년 향한 지속가능한 발전 구축”

“한신대학교는 신앙과 학문, 정의와 평화를 바탕으로 창학 100주년을 향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겠다.”

강성영 한신대학교 총장은 지난달 31일 서울캠퍼스 예배당에서 열린 제21대 총장 취임예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조선 신학교의 창학 이념과 ‘한신다움’의 정신을 계승해 시대의 변화를 통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강 총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미래 전략으로 ‘한신의 미래비전 VISION 2040’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신학과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AI 융복합교육 혁신 ▲인간 중심의 AX(AI Transformation) 기술 발전 선도 ▲평화교육 실천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 구현 ▲신학대학원 중심 서울캠퍼스의 체계적 신학교 재건 등이다.

이날 취임예식은 1부 예배와 2부 취임

식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예배는 전철 교목실장의 인도로 김은경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중경총회장)의 기도, 김지옥 신학대학원 학생회장의 성경봉독, 소프라노 권은주(한양대 교수)의 찬양 순으로 이어졌으며, 한국기독교장로회 이종화 총회장이 ‘개혁의 정신과 신학교육’을 주제로 설교했다.

이종화 총회장은 설교에서 “한신대는 ‘한신성’이라는 자랑스러운 전통과 정체성을 지닌 대학”이라며 “교육이념인 ‘진리·자유·사랑’은 성경이 강조하는 ‘정의·인자·겸손’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2부 취임식은 박재원 목사(한신학원 이사회 서기)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오용균 한신학원 이사장의 임명사, 강성영 총장의 취임사 및 취임사, 교기 전달 등이 이어졌다. 이후 소프라노 권은주와 베이스바리톤 윤종민의 축하, 채수일 전 총장과 김준혁 국회의원의 축하, 교가 제창, 주재용 전 총장의 축사로 마무리됐다.

/이현진 기자

서울 전 자치구에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중랑캠퍼스 개관… ‘1자치구 1캠퍼스’
AI·디지털 분야 청년인재 양성 목표

서울시가 AI·디지털 분야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 25호 중랑캠퍼스를 개관하며 ‘1자치구 1청년취업사관학교’ 구축을 마쳤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중랑캠퍼스(망우로 313)는 연면적 620㎡ 규모로 강의실 3곳, 커뮤니티 라운지, 팀 프로젝트실 등을 갖췄다. 서울시는 이곳에서 디지털마케팅, 데이터분석, 서비스기획 등 3개 AI 융합 과정을 운영하며 올해 75명의 교육생을 선발했다. 교육은 11월 초부터 내년 2월 초까지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패션 브랜드 마케팅 실무 ▲생성형 AI 데이터분석 ▲금융·공공 IT 서비스 기획자 양성과정으로 구성됐다. 패션 브랜드 마케팅 과정은 글로벌 마케팅 실무 프로젝트를, 생성형 AI

데이터분석과정은 핀테크·금융AI분야 실습과 멘토링을, IT 서비스 기획 과정은 금융·공공·물류 분야 비즈니스 모델 설계를 다룬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5년간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해 총 1만114명의 청년을 교육했고, 누적 취업률은 75.4%를 기록했다. 수료생의 직무유지율도 평균 93%로, 교육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경력을 이어가는 비율이 높다.

한편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21년 2개소에서 출발해 매년 확충돼 올해 중랑캠퍼스 개관으로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됐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마포·중구·종로 3곳을 ‘AI 특화캠퍼스’로 개편해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 등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특화 과정을 운영 중이다. 1기 수료생의 70%가 삼성, 쿠팡, 크래프톤 등 주요 기업에 취업했다.

/이현진 기자

주요 10개 대학 정시, 경영·반도체 ‘최상위’

2025학년도 정시 합격점수 분석
인문계 ‘경영학’, 자연계 ‘반도체’
무전공 선발에도 학과 쏠림 심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주요 10개 대학의 2025학년도 정시 합격점수를 분석한 결과, 인문계에서는 경영학과가, 자연계에서는 반도체 관련 학과가 상위권을 가장 많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주요 10개 대학 정시 합격점수 상위 3개 학과 중 인문계에서는 경영학과가 5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자유전공학부(4개교) 통계학과(4개교) 행정학과(4개교) 교육학과(3개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문계 상위권 학생들이 여전히 경영·경제 계열을 중심으로 진학 선호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올해는 특히 자유전공학부의 부상이 눈에 띈다. 지난해 2개교에서 올해 4개교로 늘며 경영학과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통계학과 역시 지난해 3개교에서 4개교로 증가해 수리·데이터 기반 학과의 인기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경제학과와 미디어학



지난 7월 진로진학 박람회를 찾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학입시 전략을 듣고 있다. /뉴스시스

과는 각각 지난해 3개교에서 1개교로 줄었다.

자연계에서는 의약학계를 제외한 순수 자연계열 기준 상위 30개 학과 중 반도체학과가 5개교로 가장 많았고, AI(3개교) 건축(3개교) 컴퓨터(3개교) 자유전공(2개교) 전자전기(2개교)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학별 상위학과를 보면 서울대는 자체 환산점수 기준으로 인문계 ▲광역(학부대학) 401.80점 ▲자유전공학부 401.20점 ▲경영대학 399.80점 순이었고, 자연계는 ▲수리과학부 413.40점

▲컴퓨터공학부 411.40점 ▲전기정보공학부 406.00점으로 나타났다.

연세대는 국·수·탐 각 과목별 70%컷을 합산한 점수 기준으로 인문계 ▲경영학과 281.5점 ▲사회복지학과 280.0점 ▲응용통계학과 279.5점, 자연계는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 286.5점 ▲시스템반도체공학과 286.0점 ▲지구시스템과학과 285.0점 순이다.

고려대는 인문계 ▲통계학과 95.02점 ▲한국사학과 94.83점 ▲학부대학 94.65점, 자연계 ▲인공지능학과 95.50점 ▲전기전자공학부·차세대통신학과 95.17점 순으로 집계됐다.

종합하면 수능 상위권 학생들의 선호는 인문계에서는 경영학과와 자유전공학부, 자연계에서는 반도체·AI·컴퓨터 관련 학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무전공선발이 확대된 최근 입시 구조를 고려할 때, 무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최종 학과 선택에서도 이 같은 학과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학과별 재학생 수 격차가 커지고, 졸업인원 기준으로도 학과 간 불균형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현진 기자



▲美 “中, 조선·해운 보복조치 철회키로”…한화 오션 제재 풀리나
▲영국 열차내 칼부림에 9명 중태…경찰 “중대사건” 대테러 수사

/사진 뉴스시스

▲세르비아 기차역 붕괴 참사 1주기에 수만명 추모집회
▲비밀 여창에 잡은 고기 숨긴 중국어선 2척 나포…이튿날 석방

▲“독도 비행이 이유”…일본, 블랙이글스 자위대 기지 급유 거절
▲“121명 사망한 브라질 갭단 소탕 작전서 34억 원대 무기 압수”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로또청약’ 당첨돼도
현금 25억 필요
08

metro®

Life

APEC 빛낸
K-뷰티
우수·혁신성 알려
L2



“액티브는 공격 아닌 대응… 성실함 쌓아 신뢰 완성할 것”



새벽을 여는 사람들

타임폴리오자산운용
김 남 호 ETF운용본부장

그의 밤은 두 개로 나뉜다.

첫 번째 밤은 10시 무렵 잠드는 시간, 두 번째 밤은 새벽 2시 알람이 울릴 때부터 시작된다. 김남호 타임폴리오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2시부터 한 시간 동안 미국 주식 체결 현황을 살피고, 오더가 계획대로 흘러가는지 꼼꼼히 점검한다. 미국장은 새벽 5시에 닫히지만 그는 그 이전 1시간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구간’으로 쓴다. 기록을 남기고, 다시 눈을 붙인다. 아침 6시 반~7시 사이 출근한 김 본부장은 커피 한 잔과 함께 블루버그 단말을 켜고 밤새 움직인 매니플로우(자금 흐름)를 스크랩한다. 8시부터는 국내 장 개장을 맞춰 포지션을 조정하고, 장중엔 실시간 대응에 집중한다. 장이 끝나면 저녁 세미나·강연 일정을 소화하고, 다시 미국장 주문을 넣는다.

김 본부장은 “운용은 숫자가 아니라 루틴이다. 하루 한 시간이라도 시장을 더 보면, 그 시간이 쌓여 판단의 밀도가 달라진다”라고 말했다.

그에게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운용 철학이다. 시장이 쉴 때 자신은 준비하고, 시장이 열릴 땐 집중한다. 운동 역시 루틴의 한 축이다. 필라테스 두 번을 포함해 주 4회 운동으로 컨디션을 관리한다. 김 본부장은 “무게보다 균형이 더 중요하다”며 컨디션이 흔들리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을 경계했다.

스스로를 관리하는 일과 시장에서 잠시 물러나는 법, 그 균형에서 ‘손실을 복구하는 힘’이 나온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본부장은 “(거래를 할 때) ‘고집’이 제일 위험하다. 내가 맞다고 믿는 순간, 포트를 바꿔야 할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액티브를 향한 오해 풀고파”

김 본부장의 시작은 수학이었다. 스톤브룩대에서 수학·통계를 전공했고, 산업은행 PEF 부서에서 커리어를 열었다. 그는 “주식·채권이 아닌 지분투자를 하며 ‘사람이 기업을 바꾼다’는 걸 배웠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 말 한화자산운용으로 옮긴 뒤 6년간 패시브 ETF를 운용했다. 거시·산업구조·팩터 분석으로 시장을 정교하게 설명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갈증이 쌓였다.

김 본부장은 “ETF 코멘트를 쓰라고 하면 매크로 전망은 술술 나오는데, ‘내 판단’이 담긴 문장은 비어 있었다. 하지만 액티브는 달랐다. ‘왜 이 기업인가’를 내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직전 직장인 한화자산운용을 퇴사한 뒤 단 5일의 휴식만 갖고 타임폴리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결정의 순간, 힘이 되어준 사람은 아내였다. 그 한마디가 방향을 정해줬다”고 미소지어 보였다.

그가 액티브를 정의하는 방식은 분명하다. “액티브는 공격이 아니라 대응”이라는 정의를 분명히 했다. “시장은 살아 있는 생물이고, 자금의 방향은 매일 변합니다. 오를 땐 주도주로, 흔들릴 땐 방어·배당으로, 유동성의 물길을 바꿔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의 모니터엔 늘 엑셀로 정리된 수급표가 떠 있다. 그는 “논리보다 유동성이 가격을 움직인다. 돈이 가는 길을 해석하는 게 운용역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대응은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 실제로 TIMEFOLIO 글로벌AI인공지능액티브’는 상장 이후 누적 280%,



김남호 타임폴리오자산운용 ETF운용본부 본부장이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

“

수학·통계 전공 후 산업은행서 커리어 시작
‘내 판단’ 담을 수 있는 액티브에 매력 느껴
돈이 가는 길 해석하며 시장 유동성 파악해
AI·가상자산 등 유연한 대응으로 성과 창출

최연소 본부장… 함께 일하고 싶은 팀 구축
하루 한 시간씩 더한 꾸준함으로 판단력 키워
단기성과 아닌 장기구조 액티브 ETF ‘목표’

연초 이후 40% 수익률을 기록하며 순자산 1조원을 돌파했다. 생성형 AI·반도체·클라우드·전력 인프라까지 밸류체인을 넓게 잡고, 국면이 바뀔 때마다 포트폴리오를 기민하게 조정했다. 때로는 ‘라부부’ 인형 열풍을 포착해 제조사 팝마트(Pop Mart)를 담고, 글로벌 OTT 발 콘텐츠 확산에 맞춰 인바운드 수혜 리츠 비중을 ‘K-컬처액티브’ 내에서 확대했다.

가상자산 관련주엔 더 과감하게 나섰다. 스테이블코인 ‘썬’을 국내에서 가장 먼저 편입해 일부 차익을 실현했고, ‘미국나스닥100액티브’에서는 로빈후드를 톱포트로 끌어올렸다. 그는 “지수와 상관을 관리하면서도 알파를 내야 한다. 새로운 유동성이 유입되는 교차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런 그가 특히 애착을 드러낸 상품은 ‘Korea플러스배당액티브’다. 월 0.5% 분배 구조를 설계해 운용성과(매매 차익)와 기업 배당을 결합, 세후 효율을 극대화했다.

김 본부장은 “이 상품이야말로 패시브로는 만들 수 없는 구조”라며 “운용을 잘해야 분배금을 줄 수 있고, 상장 후 상장가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성과보다 ‘돌아오는 팀’을 만드는 사람

지난 조직개편에서 타임폴리오는 ETF본부를 ‘운용’과 ‘전략’으로 분리했다. 전략본부는 김남의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본부장이, 운용본부는 그가 맡았다. 업계 최연소 본

부장 타이틀을 달게 된 것이다. 팀원도 6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16개 ETF 가운데 8개를 그가 직접 운용하고 있으며 새로이 합류한 팀원들이 함께 애쓰고 있다.

그는 “최연소 본부장 타이틀의 부담보다 성과의 압박이 크다”며 “그럼에도 이 회사의 장점은 ‘운용이 본업에 집중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리더십은 동료들 ‘매니저 대 매니저’로 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김 본부장은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매니저들의 의견을 묻고 토론을 거쳐 포트폴리오를 완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후배 매니저들을 대할 때 상품에 대한 보고보다 일상의 대화를 먼저 나눈다. “이번 주말 뭐 했어?”로 시작하는 팀 미팅에서 ‘사람의 온기’가 먼저 공유된다.

그는 “성과만 따지면 매니저는 결국 떠날 수밖에 없다. 함께 일하고 싶어지는 팀, 실패하더라도 배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팀이 지속 가능한 조직이다”라고 정의했다.

타임폴리오가 그에게 어울리는 회사였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는 “운용역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절차보다 실행을 중시한다. 사장님, 부사장님이 직원들의 고민을 직접 들어주는 문화가 있고, 그런 분위기 덕분에 매니저들이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스스로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김 본부장은 “패시브 위주의 자산운용사엔 탁월한 퀀트·패시브 인재가 지금도 많지만 내게 유일하게 더 나은 점이 있다면 ‘꾸준함’이라고 꼽았다. 이어 “하루 한 시간을 더 본다면 1년이면 15일이 된다. 10년이면 150일이다. 그렇게 쌓인 시간이 결국 시장을 보는 눈을 다르게 만든다. 앞으로도 그 ‘성실한 시간의 힘’을 믿으며 나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비전은 단순하지만 뚜렷하다. 액티브 ETF를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 구조’로 자리 잡게 하고, ETF 매니저도 ‘이름’이 있는 직업으로 만드는 일이다.

김 본부장은 “ETF에도 ‘신뢰의 이름’이 필요하다. ‘그 운용역이 맡은 액티브 ETF면 들어갈 만하다’는 말이 나오는 시장을 만들고 싶다”는 게 그의 바람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제작년 ‘떼죽음’ 견뎌낸 산양, 11월 멸종위기종 선정
▲APEC도 놀란 한국시리즈 열기…LG, 2년만에 통합 우승
/사진 뉴시스

▲‘황희찬 결장’ 올버햄프턴, 풀럼에 0-3 완패… EPL 10경기 무승
▲다저스, 연장 11회 접전서 토론토 꺾고 MLB 월드시리즈 2연패

▲임예진, 서울마라톤 여자부 우승…김홍록은 남자 국내부 1위
▲‘점프 실수’ 피겨 윤아선, 시니어 그랑프리 3차 대회 최종 10위